



이달의 포커스 뉴스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선포, 외국인투자·무역 내실화 추진

12P

<기업탐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 코로나 위기를 기회삼아 체질개선과 신규사업 방안 마련

19P

2021 베트남 증시, 이제는 실적을 확인할 차례!

- 현재 베트남 증시는 과열이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23P

베트남 해외시장뉴스 · 월간 뉴스 동향 · 프로젝트 동향	2
베트남 인사이드 10년 후 베트남, 한국과의 협력 주목	18
<기업탐방>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감상균 법인장	19
<금융> 2021년 베트남 증시 한복희 법인장	23
<법률> 2021년 베트남 신법·개정법 김유호 변호사	28
<노무>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자 해고 사유 .. 최지웅 변호사	31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다낭시>	34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1
<웹툰> FTA 의의 및 효과	46
코리아데스크 소개 · 공지사항 및 사업안내	48





베트남, RCEP으로 글로벌가치사슬(GVC)에 날개를 달다

- RCEP, EU-베트남 FTA 등 15개 협정 체결, 14개 협정 발효 중
- 진출기업 FTA 활용을 위해 전략적 활용 계획 수립 필요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등 총 15개가 참여한 RCEP이 2020년 11월 공식 서명했으며, RCEP이 발효되는 경우 베트남의 경제 영토는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GDP, 인구를 보유한 RCEP

2020년 11월 15일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뉴질랜드 포함 15개국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인구 기준 23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30%에 달하고 GDP는 26조 달러로 전 세계 GDP 대비 26.9%를 차지한다. 또한 무역 규모는 9조 2000억 달러로 교역 대비 비중 24.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한·중·일이 동시에 참여한 최초의 무역협정인 동시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양자 FTA가 체결돼 있지 않았던 일본과 최초의 FTA를 체결 할 수 있게 됐다.

RCEP은 기존 협정과 비교할 때, 관세의 경우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경쟁, 정부조달 등 최신 규범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의무 규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베트남, RCEP으로 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베트남은 RCEP 발효 후 자국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관세의 92%까지 철폐할 예정이며, 반대로 베트남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아세안 국가로 수출 시 관세의 85.9%, 기타 국가 수출 시는 89.6% 철폐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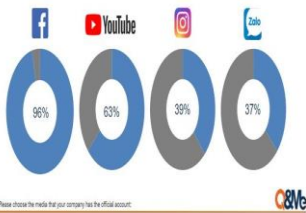
시사점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RCEP이 발효되는 경우 기존에 체결된 FTA에 비해 관세 혜택이나 신규 체약국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RCEP의 원재료 원산지 누적 및 완제품 수출을 아우르는 메가 FTA 전략 수립을 통해 수출 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발행뿐만 아니라 사후검증에 대한 대응은 기업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Popular digital media in use



베트남 기업이 선호하는 디지털 마케팅

- 2020년 시장 규모 약 2억 9000달러, 인구의 67% 이상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 현지 기업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활용 홍보 및 검색 광고 마케팅(SEM) 활성화

베트남 인구의 67%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

베트남의 스마트폰 등록 대수는 인구의 150%인 1억4580만 대에 이르며, 2020년 1월 기준 베트남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는 6500만 명,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보급률은 67%에 달한다. 전년 동기 대비 베트남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이용자는 9.6% 증가했다.

2020년 베트남 디지털 마케팅 시장 규모

2020년 한 해 베트남 디지털 마케팅 시장 규모는 약 2억 8995만 달러였으며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활용한 광고와 검색 엔진 마케팅(SEM)은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광고 전략이었다.

베트남 기업이 선호하는 디지털 마케팅

2020년 시장조사기관인 Q&Me에서 베트남의 172개 대상 기업에 조사한 결과 82%의 기업은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가장 인기 있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선정했다. 이어 검색 광고 마케팅(SEM) 50%, 옥외 디스플레이 광고 45%, 온라인 비디오 광고 40% 순이었다.

베트남 기업이 선호하는 소셜네트워킹 서비스 플랫폼 To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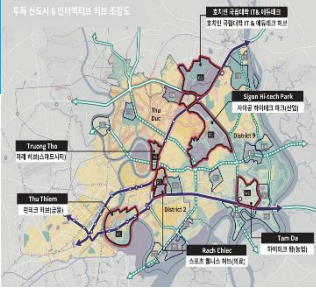
2020년 11월 시장 조사 기관인 Q&Me가 베트남 기업 172개에게 조사한 결과 Facebook은 최대 규모의 사용자 기반과 이용자 연령대 및 사용 패턴 구분 알고리즘으로 인해 93%의 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광고 효과를 주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로 선정됐다. 뒤를 이어 YouTube 기업 계정(63%), Instagram 비즈니스 계정(39%), Zalo (37%) 순으로 기업의 광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검색엔진마케팅(SEM)활용

베트남 기업들이 두번째로 선호하는 디지털 마케팅은 검색 광고 상위에 유료광고를 노출해 고객의 클릭을 유도하는 검색 엔진 마케팅(Search Engine Marketing - SEM)이다. 베트남의 디지털 마케팅 회사인 N사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검색엔진은 Google로, 베트남에서 검색 광고 마케팅을 수행할 때는 Google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베트남에서 검색 엔진 마케팅(SEM)을 이용해 홍보를 원하는 기업은 2019년 베트남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 94%를 차지한 Google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베트남 최초 도시 안의 도시, 투득 신도시 어디까지 왔나

- 호치민시, 2군, 9군, 투득군을 통합한 투득 신도시 설립 승인
- 도시 내의 도시로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며 2040년 까지 3단계에 걸쳐 설립 될 예정

투득(Thu Duc) 신도시는 2020년 12월 9일 결의안 제1111호 (No.1111/NQ-UBTVQH14)에 따라 호치민시의 2군, 9군, 투득군의 통합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호치민시는 베트남 최초로 도시행정모델을 구현하여 도시 안의 도시(City in the City) 모델을 구현, 호치민시 직속 1급 도시로 설립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투득 신도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도시설립 계획 중 1단계인 구축 단계를 시작하며 2040년까지 총 3단계로 마무리 된다. 기존의 2·9군과 투득군이 통합된 투득 신도시의 총 면적은 약 211평방 킬로로 호치민시의 1·4·7·12군과 빈탄(Binh Thanh)군을 인접하게 된다. 또한 투득 신도시는 통합 후 인구 150만명, 호치민시 지역 내 총생산(GRDP)의 3분의 1, 국내총생산(GDP)의 7% 기여를 목표로 한다.

고도의 인터랙티브 혁신지구 계획 (Highly Interactive Innovation Planning)

응우옌 탄 풍 호치민시 인민위원장은 투득 신도시가 베트남 최대의 인터랙티브 혁신 거점으로 개발될 것이며 동남권 지방으로 신기술을 이전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호치민시는 2019년에는 엔시티 컨설팅 회사와 손잡고 'Planning ideas for the development of a highly interactive creative urban area in the East of Ho Chi Minh City'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 공모전에서 일본의 도시 공학 및 디자인 기업인 사사키가 1등을 차지했다. 사사키가 제안한 투득 신도시 6개의 혁신 핫스팟 허브는 다음과 같

① Thu Thiem핀테크 허브	▶ 호치민의 금융 상업지구
② Rach Chiec 스포츠 웰니스 허브	▶ 의료, 생명공학 연구소와 종합 스포츠 경기장
③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 & 자동차 산업 허브	▶ 혁신 기업 유치와 디자인 산업의 중심지
④ 호치민 국립대학 IT & 에듀테크 허브	▶ 호치민 국립대학을 거점으로 에듀타운 형성
⑤ Tam Da 에코테크 허브	▶ 강 유역의 하이테크 팜 거점 산업 지구 형성
⑥ Truong Tho 미래 허브	▶ 스마트 시티 거점 지구 형성

자료: Sasaki

전략 도시 개발 방식으로 접근해야

투득 신도시가 완공된다면 당초 의도한 대로 총 인구 150만 이상의 창조혁신도시가 되어 호치민의 지역경제에 많은 부분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통합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 충돌과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베트남의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서울의 강남이나 상하이의 푸동 처럼 전략적인 도시개발 방식으로 세부 지역 개발을 단기적으로 완료 한 후에 큰 도시로 확장 해 나가는 방법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대중교통 인프라, 주거환경 개선, 교육환경 개선, 하이테크 산업단지 개발, 의료 시설 및 스포츠 시설 개발 등 투득 신도시로 통합되는 지역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단기-중기-장기적 발전의 세부 항목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실적인 프로젝트를 먼저 진행하고 살을 덧붙여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클릭시 원문으로 이동



한 눈에 알아보는 2020년 다낭시 경제동향

- 코로나19 직격탄으로 23년만에 9.77% 역성장 기록
- 글로벌 관광시장 회복 전까지 국내 관광과 스마트시티 등 첨단 기술 유치에 집중

중부 최대 도시 다낭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관광지이자, 남·북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 비용 등의 이점으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도시였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내 최대산업인 관광업이 무너졌고, 다낭시는 직할시 승격 이후 23년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지역내총생산 및 산업별 동향

2020년 다낭시 지역내총생산(GRDP)은 2019년 대비 약 4억 달러 감소한 4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1인당 GDP역시 큰폭으로 감소한 3,709달러를 기록하며 2018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산업별로는 역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8.21% 역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제조가공 분야 역시 12.2% 감소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분류되는 제약, 화학 부문은 각각 44.57%, 4.63% 성장하였다.

기업 활동 및 소비시장 부문

다낭시 관광국은 관련기업들의 2020년 관광업 수익은 2019년 대비 약 50% 감소한 3,237만 달러이며, 피해액은 약 2.9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했다. 제조업 역시 연초 원부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수출시장의 수요 감소로 위기를 겪었다. 2020년 다낭시 소비규모는 국내외 관광객 감소와 그에 따른 구매력 감소 및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9년 대비 15.6% 하락한 35.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입 및 투자 부문

다낭시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다낭시 총 무역규모는 약 28억 달러로 2019년에 비해 7.5% 감소하였다. 지역 경제 위축에 따른 수입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 수출 감소 폭을 상회하였고 그 결과 2012년 이래 9년 만에 최대 흑자(3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투자 부문은 경기 침체 극복 노력으로 공공부문이 높은 성장률(11%)을 보였으며, 외국인투자(FDI)의 경우에는 2020년 집행액이 전년 대비 37.7% 증가하였으나 신규 및 증자 투자신고액 규모는 49.8% 감소하였다.

다낭시는 2021년을 '경제 회복과 발전의 해'로 정하고 기존의 관광산업 회복과 첨단 산업 유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말 다낭시는 '2021 ~ 2025 관광 개발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지역 내 최대 산업인 관광 살리기에 나섰다. 반등이 필요한 관광업과는 달리 IT산업은 2020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5.24% 성장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최근에는 '다낭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2025, 비전 2030' 등을 발표하며, 시 지도부의 첨단산업 도시로의 도약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베트남 비대면 시대 주인공, PC 및 주변기기 시장

- 코로나19 장기화, PC(Personal Computer) 시장 성장 유도
- 현지 IT, 게이밍 시장 성장에 따라 PC, 주변기기 및 부품 시장 확대

베트남 PC 및 주변기기,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

베트남 노트북 시장 규모는 2020년 11월 1달 기준 약 43만 4000달러이며 600달러 대의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2017년 46%에서 2020년 1~5월 60%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했던 2020년 구정 이후, 베트남 노트북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

말레이시아 기반 전자상거래 통합 서비스 iPrice 그룹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판매량이 증가한 주요 6개 제품 중 웹캠 및 키보드가 포함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정책 활성화에 따른 온라인 미팅 및 수업 증가로 웹캠 수요가 급증했다. iPrice 조사에 의하면, 2020년 3월 베트남 웹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624% 상승했다. 키보드 및 마우스 관련 온라인 내 검색률 또한 각각 264%, 67% 상승하며 수요 증가를 암시했다.

PC 관련 기기 주요 판매처

베트남 PC 관련 제품 판매매장은 일부 소규모 매장을 제외하면 체인점 형식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관련 매장 담당자들에 따르면, 베트남은 아직 조립형 대비 완제품 PC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다. 베트남 PC 시장 내 한국 제품 진출은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에 속하며 이는 높은 관세율,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해외 브랜드 제품 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틈새시장 공략하기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한 해로 기록됐지만 PC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는 원격 근무,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의 증가로 인한 직접적 결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시장 변화는 앞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줄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PC 수출시장은 가격대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기업 진출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해당 분야 수요 급증, 현지 소비자들의 소득증가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가격 외에도 품질 및 브랜드를 중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는 과거 대비 고품질, 고사양 제품 수요가 증가할 것을 암시한다. 이와 같은 성장 잠재요소에 따른 현지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베트남 PC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엄마들의 필수템 유아매트, 베트남 수출 현주소 살펴보기

- 안전하게 내 아이 키우기에 관심 많은 베트남 부모 급증
-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한 한국산 프리미엄 매트 인지도 구축이 우선

코로나19로 어린이 ‘사고’ 안전주의보

2020년 상반기 베트남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방침에 따라 베트남 소재 어린이 집·유치원·초·중·고교 등의 방학연장, 휴교령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 머무는 어린이들이 증가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도 급증했다.

가정 내 안전한 환경조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베트남 부모들

최근 베트남 영유아용품 시장의 추세를 보면 영유아 건강에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유기농 및 자연친화적 유아제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Euromonitor는 2019년 베트남 영유아 제품 시장 매출이 약 6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1억30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사점

1) 가정 외 판매처 모색

베트남 진출 고려 시 당장의 이익 실현보다 홍보를 통해 프리미엄 매트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현지 유아용 시설 납품 현황을 잘 아는 바이어를 발굴해 국제 유치원, 키즈카페, 현지브랜드 실내용이 터 등 가정 외 판매처를 모색할 수 있다.

2)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의 중요성

현지업체 관계자 인터뷰에서도 언급됐듯이 베트남의 젊은 부부들은 페이스북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육아정보를 얻곤 한다.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은 현지 인기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비자 접점 구축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3) 층간소음 방지보다 ‘안전 기능’ 강조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아용 놀이매트의 가격이 낮게 형성된 이유 중 하나는, 충격 방지 외 다른 기능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인지하여 우리 기업은 향균, 무독성 등 안전기능성을 필두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스마트 스위치, 얼마나 스마트해졌을까?

- 걸음마 뎀 베트남 스마트홈 설비 시장, 성장 여지는 충분
- 통신 및 네트워크 인프라 성장에 발맞춰 스마트홈 설비 시장 확대 기대

베트남 ‘스마트홈’, 한국과 어떤 차이?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홈 기기는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작동시키거나, 자동 움직임 감지 시스템을 통해 작동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다. 스마트홈 관련 기기 시장은 성장 초기 단계이므로, 소비자의 인지도 또한 아직 대도시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스마트홈 기기 어디까지 왔나

Statista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스마트 가전 시장 규모는 약 9,43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1~2025년 스마트 가전 시장은 연평균 29%씩 성장해 2025년에는 시장규모가 2억 2,24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트남 스마트 스위치 시장 속 한국

베트남 스마트 스위치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제품은 중국 수입품이다. 건설 및 인테리어 제품 가운데 한국 수입품은 스마트 스위치보다는 일반 스위치 제품 또는 원격 조정이 가능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가정 기기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현지 스위치 수입업체 3곳을 인터뷰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베트남에서 한국 스위치를 수입하는 회사의 주고객은 중소득층이기에 품질과 디자인이 중요 구매 요인이다. ②한국 제품은 품질 측면에서 유럽 수입품과 유사하지만 가격은 더 저렴하다. ③한국 제품은 베트남 콘센트 규격과 호환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시사점

베트남 스마트 스위치 시장 진입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 또는 사업자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스마트 스위치 시장은 아직 성장 초기에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시장이 성숙해지기까지 통신 및 네트워크 구축, 현지 세무 정책 수립, 산업 규제 등 일련의 과정들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현장에서 본 미얀마 쿠데타와 현지 경제 동향

- 미얀마 군부, '21.2.1(월) 쿠데타 실시 후 정권 장악
- 빠르게 안정되고 있으나 경제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미얀마 쿠데타 발발

2020년 12월 8일 실시된 미얀마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주의민족동맹(NLD : National League of Democracy)은 선거가 이루어진 상·하원 475석 중 396석을 차지하며 압승하였다. 미얀마 헌법에 의해 군부는 전체의석(664석)의 25%(166석)를 자동으로 배정받았으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다. 군부는 2020년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이유로 탄핵·쿠데타를 언급한 바 있으며 2월 1일 새벽 기습적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원 민 대통령, NLD 주요 인사와 국회의원들을 구금하였다.

쿠데타 당일 오전 군부에서 추천한 민 쉐(Myint Swe)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게 되었으며, 이후 모든 권력을 군 최고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에 이임하였다. 군부는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비상사태 종료 후 총선을 재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민 아웅 흘라잉을 의장으로 한 국가운영평의회(State Administrative Council)를 조직하고 각 부처 장·차관을 군인 또는 친군부 인사로 교체하였다.

쿠데타 발생 이후 동향

쿠데타 발생 당일 군부는 모든 전화와 주요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통관시스템(MACCS) 및 은행 전산시스템이 마비되었으며 수출입 및 금융 업무가 중단되었다. 상점에는 식품과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몰렸으며 공항이 폐쇄되었다. 쿠데타 다음날인 2월 2일 전화와 인터넷이 복구되었으며, 중앙은행을 비롯한 은행업무도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달러 및 현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बैंक 런이라 부를 만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환율은 쿠데타 발생 전 1,330.6 MMK/\$에서 이틀만에 1,407.5 MMK/\$로 상승하였다.

공항은 특별기를 제외한 민항기 운항이 중단되어 항공운송이 마비되었으나 자동통관시스템이 복구되며 해상운송은 재개되었다. 또한 태국, 중국 등 국경무역은 정상화에 1주일가량 소요되었다. 현재 봉제·전선·강판 등 다수의 제조업체들은 정상 조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경제제재 가능성

미얀마는 2011년 이전까지 약 20년간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었다. 군부가 정권을 이양한 2011년 이후 경제제재는 단계적으로 해제되었으며, 2016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NLD가 집권하면서 일부 군부 인사에 대한 특별제재를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명령이 해제되었다.



미국의 주요 경제제재

연도	내용	관련 행정명령
1997	對미얀마 신규투자 금지	행정명령 13047
2003	미얀마 상품의 미국 수입 금지, 자산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버마 자유 민주화법, 행정명령 13310
2007	자산 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48
2008	자산 동결 대상 추가	행정명령 13464
	비자발급 금지 대상자 확대, 미얀마産 루비, 옥 관련 상품 수입 금지	버마 군부의 반민주 노력 저지 법
2012	미국 입국 금지대상 지정	행정명령 13619

자료: KOTRA 양곤무역관

미국 국무부는 2월 2일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여 강력한 제재와 대외원조 중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월 4일 백악관은 미얀마 군부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부와 관련된 광범위한 제재를 발동할 것을 시사했다.

인터뷰 및 현장 반응

익명을 요구한 진출기업 법인장은 2월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생각보다 빠르게 경제상황이 안정화 되고 있으며, 이는 군부가 기존에도 사회·경제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데타 발생일에도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바 있으며 직원들도 이상 없이 출근하였다. 수출입과 물류도 상당부분 정상화 되었으며 다른 분야도 곧 정상화 될 것으로 보여 예상보다 기업 활동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향후 경제제재가 실시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현지 공무원은 현재 관리자급 이상 공무원만 출근하는 상황이며, 신변보호를 위해 사복을 입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체된 장관, 차관 임명자 중 다수가 과거 군부정당(USDP)이 집권하던 시기의 인물들이며, 일부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반대성명을 내기도 하였다. 또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라고 덧붙였다.



시사점

현재 군부는 정권 장악을 완료하고 사회 및 경제 안정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미 군사적·경제적으로 군부의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정상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부 외국기업은 합작투자를 철회할 것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법인 청산까지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얀마는 쿠데타 이전과 다른 없는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유럽 등 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다. 과거 미얀마에 대한 제재사례로 투자 및 수출입 제한, 일반특혜관세(GSP) 철회, 금융거래 제한 등이 있었다. 미국과 미얀마의 교역·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으나, 군사정부 시절 경제제재가 장기화 되면서 미얀마의 경제성장이 정체되었던바 있다. 진출기업 또는 미얀마에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러한 미얀마의 대내외 정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16년 정권교체 시기에 미얀마 정부는 과거 군부에서 추진하던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였으며, 사업시행자와 이익주체가 변경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쿠데타로 기존 NLD 정권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일부가 변경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관련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의 미얀마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자료 : Myanmar Times, KOTRA 양곤 무역관 종합

이 뉴스와 연관되는 기사

[미얀마, 쿠데타 여파로 최빈국 졸업 결정 불확실 \(클릭 시 기사글로 이동\)](#)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 개최 결과 및 시사점

- ▶ 기존 권력서열 1,2위 최고층 지도부의 연임은 코로나19 위기 속 안정성 중시한 인사로 평가
- ▶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 진입' 비전 선포, 외국인투자·무역 내실화 추진
- ▶ 70년대생 및 중부지방 출신 등용을 통해 개방경제·균형개발 집중 전망

□ 제13차 공산당 전당대회 개요

- 1월 25일부터 2월 1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총 1,587명의 대의원이 참석
 - * 1.28일 베트남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발생으로 당초 예정일 보다 하루 조기 폐회
- 주요 안건은 공산당 주요 인사 선출, 제12차 전당대회 결의안 이행 평가,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 평가,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 설정 등임.

□ 주요 결과

- 주요 인사(지도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원, 서기국원 등) 선출
 - (지도부) 現지도부의 서기장 연임 및 국가주석 승계로 급격한 변화는 없음.

성명	현 보직	차기 보직
응위엔 푸 쯙 (Nguyen Phu Trong)	당 서기장·국가주석	당 서기장
응위엔 쉰옌 푸크 (Nguyen Xuan Phuc)	총리	국가주석
팜 민 쯔 (Pham Minh Chinh)	당 중앙조직위원장	총리
브엉 딘 후에 (Vuong Dinh Hue)	하노이시 당 서기	국회의장

* 서기장 외 지도부 3인은 전당대회에서 내정되고 15대 국회의원 총선 이후(5월) 국회에서 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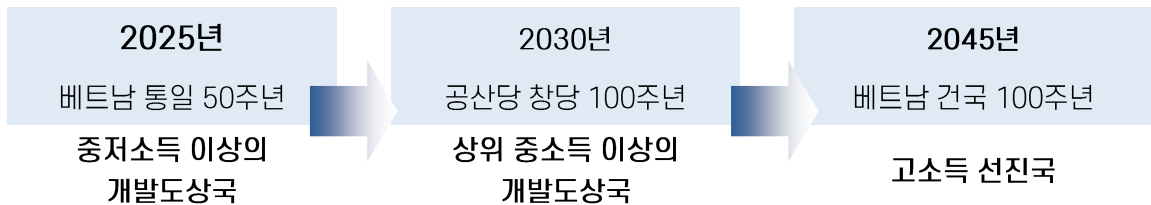
- (그 외) 정치국원 중부지방 출신 비율 高, 중앙위 70년대생 이하 대거 선출
- 10개년(2011~2020) 경제성과 평가
 - 2011~2020 사회경제개발전략은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근대산업국가로의 전환 기반 마련·일부 목표달성률 등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
 - * 낮은 수준의 과학·기술 수준, GDP성장률 정체(91~00년 7.56%, 01~10년 7.26%, **11~20년 5.9%**)
 - 그러나 지난 10년간 산업부문의 GDP 비중은 약 30%로 가공·제조업의 GDP의 기여도는 '20년 기준 16.7%까지 증가
 - 또한 세계 22위 수출국가*로 등극('19년 기준, '10년 대비 28단계 ↑)하였으며,가공품 수출비중은 85%, 첨단기술제품 수출비중은 49.8%로 증가('20년)



○ 중장기 국가 발전 목표 및 전략 발표

- 21세기 중반까지 '사회주의 지향 선진국 진입' * 비전 선포와 동시에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승인

* 베트남 건국 100주년인 2045년까지 1인당 GDP 1만 2천달러의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 또한 사회경제개발전략 발표 및 안건 토의를 통해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①선별적 FDI유치 및 국영기업 민영화, ②고급인력 양성 ③교통, 에너지, IT 인프라 우선 구축을 3대 전략적 동력으로 발표

<주요 과제 및 목표>

분 야	주요내용
거시경제	▶ 연평균 GDP 성장률 7%, 제조업·디지털 경제 비중 30% 등
산 업	▶ 혁신·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인프라 개발
무 역	▶ FTA활용을 통한 수출 시장 확보, WTO 질서 준수
외 교	▶ 다자외교 증진 및 다자기구에 대한 적극적 기여

□ 시사점

○ 외국인 투자·무역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질적 개선에 초점

- 現지도부 연임 및 공산당 요직 내 30·40대 다수 유입에 따른 개방적 경제정책 전망되나, 외형적 성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별적 FDI 유치 및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 노력 전망

* (사회경제개발전략) 첨단기술·에너지·GVC 편입 가능 FDI 우선유치, FTA활용 및 수출입 균형 강조

○ 절반 이상의 중부지역 출신 정치국원 선출로 중부지역 균형 발전의지 표명

- 이에 따른 투자 인센티브 강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활성화 전망되어 우리 기업의 중부지역 투자 진출 기회요인 기대

* '20년 기준 베트남 지역별 한국기업 투자 현황 : 북부 58.3% > 남부 35.6% > **중부 6.1%**

○ 서기장·총리 연임으로 부패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등 숙원 과제 추진동력 마련

- 특히, 부진했던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가속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 육성에 총력 할 것으로 전망

* '17년 폭 총리가 승인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목표 128개 중 37개만 완료('20년)



첨부

13차 전당대회 주요경과 및 경제 전략·계획 주요 내용

□ 13차 전당대회 주요 경과

- ▶ 1.25(월), 준비회의 소집(안건 목록·인사선출규정 동의, 자격심사단 선출 등)
- ▶ 1.26(화), 대회 개막(당 서기장 개회사, 제12기 중앙집행위 보고 청취 등)
- ▶ 1.27(수), 각종 안건 논의 및 대의원(23명) 연설
- ▶ 1.28(목), 각종 안건 논의 및 대의원(13명) 연설, 제13기 중앙집행위 인원수(200명) 의결
- ▶ 1.29(금), 제13기 중앙집행위 위원 후보 검토
- ▶ 1.30(토), 제13기 중앙집행위 위원(정위원 180, 대체위원 20) 선출
- ▶ 1.31(일), 제13기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4 Pillars·정치국원·서기국원 등 차기 지도부 선출
- ▶ 2. 1 (월), 대회 폐막(각종 안건 승인 발표)

□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 및 5개년 사회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	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
▶ 2021~2030 사회경제개발 목표 • (경제) 연평균 GDP 성장률 7% 실현, '30년 1인당 GDP 7.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연평균 에너지 소비율 1~1.5% 감소 등 • (3대 전략적 동력) ①글로벌 경제 편입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 ②고급인재/인력 양성, ③인프라 확충 • (과제 및 달성방안) 행정절차 개혁을 통한 영업활동 자유 보장, 디지털전환 촉진, 외투기업의 R&D, 혁신 센터 설립 장려, 교육기관 품질개선 및 온라인 교육 강화, 국유기업 구조조정·매각 등 효율 개선, 인프라 개발 및 해양경제 개발 등	▶ 2016~2020 사회경제개발계획 이행 평가 • 전기 대비 소비자물가 안정화, 외환보유고 증대, 국가 신용도 상승, 경상경비 감소,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감소 등 양호한 경제지표 실현 • 환경·자원관리 개선, 행정개혁에 따른 기업환경 개선, 국방·안보 강화 ▶ 2021~2025 사회경제개발 목표 • 연간 GDP 성장률 6.5~7% 유지, '25년 1인당 GDP 4.5~5천불 달성, 연간 노동생산성 증가율 6.5% 달성 • 코로나19 효과적 통제, 시장경제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물가 관리 • 자원 개발, 인프라사업 시행 촉진, 인적자원의 질 향상, 과학기술 발전·혁신 촉진 • 국가관리 효율성 제고 및 부패 방지, 국방·안보 강화 등



▶ 베트남 올 1월 수출입 규모 약 550억 달러 기록

베트남 세관총국에 따르면 올 1월 베트남의 수출입 규모는 약 55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 감소,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함. 올 1월 수출 규모는 285억 5,000달러로 전월 대비 3.2% 증가, 전년 동기 대비 55.1% 증가했으며, 수입 규모는 264억 6,000달러로 전월 대비 5.2% 감소,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20억 9,000달러 흑자를 기록함. FDI기업의 1월 수출입 규모는 390억 6,000만 달러로 전년 146억 9,000만 달러 대비 60.1% 증가했으며 FDI기업 1월 수출액은 전년 대비 70% 증가한 215억 7,000만 달러로 1월 전체 수출액의 75.5%를 차지함. 또한 FDI기업의 1월 수입액은 전년 대비 49.4% 증가한 175억 9,000만 달러로 1월 전체 수입액의 66.5%를 차지함.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삼성이 Galaxy S21, Galaxy S21 Plus, Galaxy S21 Ultra 등의 신제품을 제조 및 수출 하고 있기 때문에 1월에 이어 2월 수출실적도 성장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함. 도시 별 수출입 규모는 호치민(89억 달러), 박닌(77억 달러), 빈즈엉(50억 달러), 타이응우옌(44억 달러), 하노이(38억 달러) 순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2. 19]

▶ 2020-2025년 베트남 식음료 시장, 연평균 성장률 5~6% 전망

2020 베트남 보고서에 따르면, 일용소비재(FMCG)는 발전 잠재력이 큰 주요 경제 부문 중 하나임. 그 중 식음료 시장은 2020-2025년 연평균 성장률 5~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코로나19 여파에도 베트남 식음료 산업은 강력한 성장 기회를 갖고 있음. 최근 현지 소비자들은 식물성 영양 식품, 유기농 식품 또는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식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한편, 현지 식음료 업체는 경쟁력을 높이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한다고 평가받고 있음.

[Vietnamnews, 2. 18]

▶ 1월 섬유·의류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26억 달러 기록

현지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2021년 1월 베트남 섬유·의류 수출액은 약 2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함.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inatex)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1년에 약 390억 달러 상당의 의류 제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Vietnamnews, 2. 18]

▶ 2월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만 4,000회분 첫 도착 예정

베트남 보건부가 의약품 수입에 대한 긴급 승인요청(1215/QLD-KD)을 2월 17일 허가함에 따라 2월 28일 베트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만 4,000회 분이 처음 도착할 예정임. 비슷한 시기에 개발도상국을 위한 백신 원조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지원하는 488만 6,400회 분의 백신도 도착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총 500만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는 분량의 백신이 마련 될 것으로 예상됨.

[Nhan Dan, VN Express, 2. 17]



▶ 제조 잠재력 고려, 베트남은 한국 기업에게 지속적으로 유망 투자처가 될 것

대한상공회의소 베트남 사무소에 따르면 베트남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20년 한국의 FDI 등록 자본금은 39.5억달러 이상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두번째라고 밝힘. 베트남에 투자된 한국 자본의 70%는 제조업에 투자되었으나 금융, 증권, 보험 및 부동산 부문 투자도 증가하고 있음.

[VN Express, 2. 17]

▶ 미중무역분쟁으로 중국 내 제조업 기지 이전 움직임에 반사이익 받은 베트남, 세계에서 뜨는 물류 시장 8위 부상

글로벌 물류기업 Agility의 2021 신흥시장 물류지수(Emerging Markets Logistics Index)에서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5.67점으로 상위 8위를 기록함.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은 미중무역 마찰 등으로 인해 최근 제조투자 기지로서의 매력도가 상승함. 한편, 상위 3위는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임. 베트남 물류 사업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약 30,000개의 물류 회사가 있으며 그 중 4,000개가 외국인 소유임. 동 분야는 매년 12~14% 성장하고 있으며 시장가치는 현재 400-420억 달러로 추산됨.

[Vnexpress, 2. 17]

▶ 베트남 자동차 조립·생산업체, 한국·태국 및 중국 부품에 크게 의존

베트남 관세 총국에 따르면 베트남의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 한국·태국·중국 3국에서 수입되는 부품이 전체 자동차 부품의 62%를 차지함. 2020년, 베트남에서는 약 40억 달러 이상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 한 것으로 추정됨. 베트남은 2020년 11억 달러 이상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함. 뒤를 이어 태국 (7억 3,300만 달러), 일본 (7억 2,700 만 달러), 인도네시아 (1억 7,400만 달러), 독일 (5,240만 달러)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함. 베트남에서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현지에서 자동차 조립·생산을 하는 현대-타이콩 그룹의 자동차 판매량이 2020년 베트남에서 1위를 기록한 덕분으로 분석됨. 베트남에서 2020년 한 해 판매된 현대-타이콩 자동차는 약 8만 1,400대에 이룸. 또한 기아-타코도 2020년 한 해 3만 9,180대를 판매하여 판매 순위 3위에 오름.

[Dantri, 2. 8]

▶ 탄푸-바오록 고속도로, 민관합작으로 2021-2025년 건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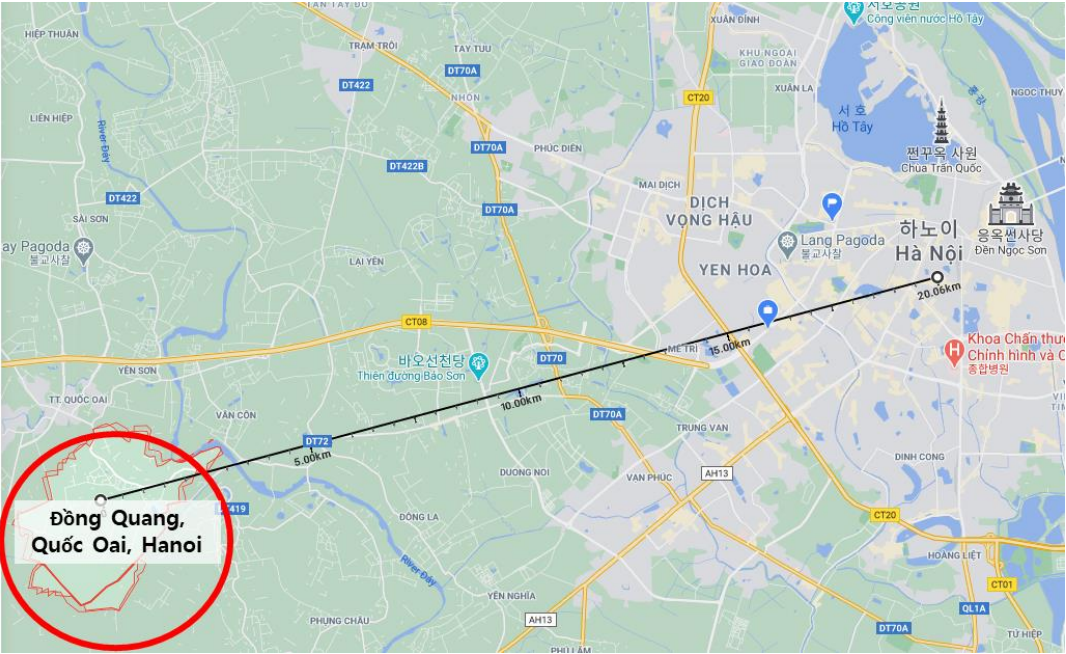
2월 4일, 교통부는 총 7억 9,130만달러 투자 규모인 탄푸(동나이 성)-바오록(람동 성)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2021-2025년 사이에 민관합작 형태로 건설된다고 공표함(No.24/TB-VPCP). 이 프로젝트에는 약 67km의 고속도로와 저우저이-리엔끄엉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4차선로가 건설됨. 폭 총리는 람동 성 인민위원회를 민관 합작 2021-2025 고속도로 사업이행 기관으로 지정함. 탄푸-바오록 고속도로에 대한 총 투자액은 약 7억 9,130만 달러로 이 중 민간 기업에서 4억 1,940만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베트남 정부 예산에서 조달하는 민관합작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임.

[Vietnam Investment Review, 2. 8]



(입찰정보)

1. 프로젝트 세부정보

발주처	○ 기관명: National Power Transmission Corporation(NPT) ○ 웹사이트: www.npt.com.vn ○ 연락처: +84-24-2222-6666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하노이 서부 변전소(500kV) 건설 ○ 현장위치: Đồng Quang, Quốc Oai (하노이 서부 약 20km)  ○ 규모: 10백만 달러 ○ 프로젝트 재원: 발주처 편당 ○ 프로젝트 단계 : F/S 단계 ○ 입찰예정일: '21.9월 ○ 세부내용: - 하노이 서부지역 500k 변전소 신축 프로젝트 - 300MVA 변압기 3개 조합 통한 500kV-900MVA 변전소 건설 - 변전소 건설에 필요한 자재, 장비 및 부속품 공급 및 설치

발주처 담당자 정보 필요시 별도 문의 (joohopark@kotra.or.kr)



10년 후 베트남, 한국과의 협력 주목



글로벌인사이트

박민준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부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승자로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 주요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에 비해 2020년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무려 2.9%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밸류체인인의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 올해 성장률도 8%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의 주요 무역투자 대상국이자 싼 남방정책의 핵심 대상국가가 베트남임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베트남정부가 발표한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은 베트남의 1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청사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매 10년 단위로 작성하는 동 문건은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승인하는 베트남의 공식 개발전략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은 2030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7500달러를 달성해 '중소득의 현대적인 산업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며 GDP 대비 제조업 비중과 디지털경제의 비중을 각각 30% 이상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 행정절차의 획기적 개선 등을 통한 사회주의 지향 시장 경제체제의 질적 제고를 추진하고,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하며 인프라를 개선한다는 방향성도 제시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해

외직접투자(FDI)의 선별적 유치를 통해 단순가공형 제조업보다는 소재·부품산업, 첨단기술, 에너지·자원 분야, 친환경 등의 분야를 집중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고속도로, 공항, 지하철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보다 친환경적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의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도 많다. 국제적으로는 보호주의와 포퓰리즘이 확산될 조짐이 있고 베트남의 제도, 인프라, 인적자원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경우가 많다. 또한 과학기술, 생산성, 효율성 등을 평가할 때 베트남은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베트남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도 시급한 문제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다.

베트남이 이 같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통해 세계 주요 산업대국으로 성장한 저력과 K-Pop 등으로 대변되는 문화적 소프트파워를 베트남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현지의 베트남 당국자들이나 기업인들은 한국의 사례나 노하우를 전수받거나 한국 혹은 한국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베트남은 장점이 많은 나라이다. 부지런한 국민성, 젊은 인구구성, 국민의 경제성장에 대한 자신감과 낙관, 상당히 높은 여성의 경제참여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간의 한·베트남 협력방식이 다소 일방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은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코로나, 위기를 기회삼아 체질개선과 신규사업 방안 마련
-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상생의 원칙과 사회적 가치추구

한화에어로엔진스 베트남 감상균 법인장(상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떤회사인지? 기업의 핵심가치에 대해 소개 바랍니다

먼저 사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면 한국의 정밀기계 가공분야의 선두 주자로 유일한 항공기용 가스터빈 제조 회사입니다. 군수부문은 군용기 엔진의 부품제작, 조립,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민수는 상용항공기의 부품제작, 조립 수출을 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 엔진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계 4대 엔진메이커(미국 GE, P&W, 영국R/R, 독일 MTU)와 사업중이며 국내의 주요 고객으로는 軍과 KAI등이 있습니다.

생산 Site는 한국의 창원과 아산 두곳이 있고 베트남에 Hanwha Aero Engines가 '17년에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19년에는 미국의 엔진부품 제작 회사를 인수하여 Hanwha Aerospace USA를 설립함으로써 4개의 글로벌 생산 Site를 운영하고 있으며 판교에는 항공우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 분야에서 품질, 기술력은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의 P&W와는 중형 항공기용 신규 엔진 설계, 제작에 RSP(Risk&Profit Share Program) 형태로 일정 지분 참여 함으로서 평생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물량확보와 향후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어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가 더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민항기 엔진 부품 제작 분야의 원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에 진출하여 사업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현재 Hanoi 첨단기술 공단인 Hoa Loc공단에 운영중이며 '18년 1공장 준공 후 '20년 6월에는 2공장을 준공하였고 향후 3공장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회사의 핵심가치는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최고를 추구하는 도전정신,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바르고 정당하게 행동하는 정도, 회사, 고객, 동료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헌신의 세가지 입니다. 그리고 '혼자 빨리 가기 보다는 함께 멀리가자! 멀리 갈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상생의 원칙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베트남을 글로벌 공략 전초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한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도 소개 해주시죠?

현재 베트남에는 다양한 분야에 9개의 계열사들이 진출해 있고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조 분야는 항공기 엔진을 제작하는 한화에어로엔진스와 보안, 감시카메라를 생산하는 한화 테크윈이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고 금융, 증권분야는 한화Life와 Pine tree가 사업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태양광과 열병합, LNG 발전사업을 하는 한화에너지, 컴프레셔와 반도체 칩마운트 공급 및 서비스 사업을 하는 한화 파워시스템, 한화정밀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역 및 투자관리 분야는 한화글로벌, 한화자산운영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화 Life를 제외한 대부분이 진출한지 오래 되지 않아 아직 규모면에서 크지 않지만 사업확대 기반들을 착실히 구축하고 투자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향후 한화그룹의 베트남에서 역할과 위상은 괄목할 성장을 해나갈 것입니다.

메콩강에서 실시한 환경보호 캠페인 ‘클린업 메콩: 한화 솔라보트’가 뉴욕페스티벌 광고제에서 ‘친환경 PR’ 부문 금상을 받았는데, 보다 자세한 소개 바랍니다.



‘클린업 메콩: 한화 솔라보트’ 캠페인은 수상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베트남 메콩강 하류 지역(빈롱市)에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쓰레기 수거 보트를 기증하여 탄소 배출 없이 수상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한 캠페인입니다. 베트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베트남이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에 저희 한화의 친환경 기술력을 활용한 것이죠. 19년 6월 빈롱 지방정부에 태양광 보트 2대를 기증한 이후, 하루에 400~500kg씩 수상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지방정부에서 결과를 공유 받았습니다. 타 지방정부로부터 솔라보트 관련 문의가 여러 번 빈롱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 시민들의 환경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도 SNS 상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CleanUpVN/>).

‘클린업 메콩, 한화 솔라보트’ 캠페인은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서 1,340만회 이상 조회될 정도로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https://youtu.be/o4VzKjQl6Dw>)

그 결과,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평가되는 뉴욕페스티벌 국제광고제에서 금상 1개, 동상 5개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근본적으로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CSR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일회성 기부나 이벤트가 아닌 임직원들이 직접 이웃의 삶속으로 들어가는 참여형 봉사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대응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매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던 민수 항공 분야도 운항 제한으로 여객수요가 전례없는 감소폭을 보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 9/11, SARS, 금융위기 시에도 다시 회복했던 탄력성이 있는 시장인 만큼 '22년도에는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될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글로벌 경쟁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와 체질이 약한 회사들은 향후 경쟁 대열에서 밀려 나갈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사업영역은 시장회복기를 대비한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련의 체질 개선 활동중에 있고 또한 인접 사업 영역에서 미래 신규 사업 확대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법인은 사업확대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생산기지가 되기 위한 역량 향상과 고객 신뢰를 위한 Reference를 착실히 준비하고 쌓아가고 있습니다.

감상균 한화에어로엔진스 법인장님의 경영 철학과 임기중 중점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바랍니다.



안전과 품질은 제조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회사를 다니는가?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자신의 건강을 잃거나 불구의 몸이 된다면 본인과 가족의 삶이 과연 행복하겠는가?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불안전한 행동을 하지말고 위험이 인지되면 작업을 즉시 중단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품질이 사업의 생명입니다. 육상의 자동차와는 달리 하늘에서 엔진결함으로 추락시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재앙을 맞을수 있고 이 경우 사업 또한 지속하기 힘든 위기를 맞을것입니다.

또 고객의 신뢰없이 사업성장은 기대할 수 없기에 품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품질이 바탕이 되지 못한 생산성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첫번째 덕목은 솔선수범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업무나 미션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열정이 필요한데 리더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서 직원들에게 요구하고 말로만 독려한다면 직원들의 동기부여, 공감을 통한 열정을 끌어 내기 어려울것입니다.

저의 임기중 큰 역할은 단기적인 경영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확대, 성장할 수 있는 체계, 체질, 역량강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대나무가 씨를 뿌린후 3~4년간 자라지 않고 땅속에서 뿌리내리기 작업한 후 이후 하루에 1m씩 성장하는 현상을 Quantum Leap(폭발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Hanwha Aero Engines도 이러한 성장을 하기 위한 뿌리내림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향후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초정밀 고품질의 항공산업입니다. 현지 인력 환경은 어떻습니까?



항공산업은 초정밀, 고품질이 요구됨으로 현지 직원들의 기술 역량 축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오랜 경험이 필요해서 장기근무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잦은 이직문화로 기술이전이나 역량 축적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지인력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동기부여와 비전, 공감 등을 위한 경영설명회, 인사제도 설명회, 계층별 간담회, 직원 가정방문 등의 다양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방문은 처음에 현지 직원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의 궁금함에서 시작했지만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또 나를 어려워하던 직원들도 먼저 다가와 인사하고 때론 농담을 던지기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안정적인 작업자 운영을 위해 고교졸업 후 대학진학을 원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취업을 해야하는 우수학생들을 선발하여 학비전액 지원과 회사실습 및 취업을 보장하고 장기근무를 유도하는 산학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예전 대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에도 첨단기술 분야의 장기근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외 지면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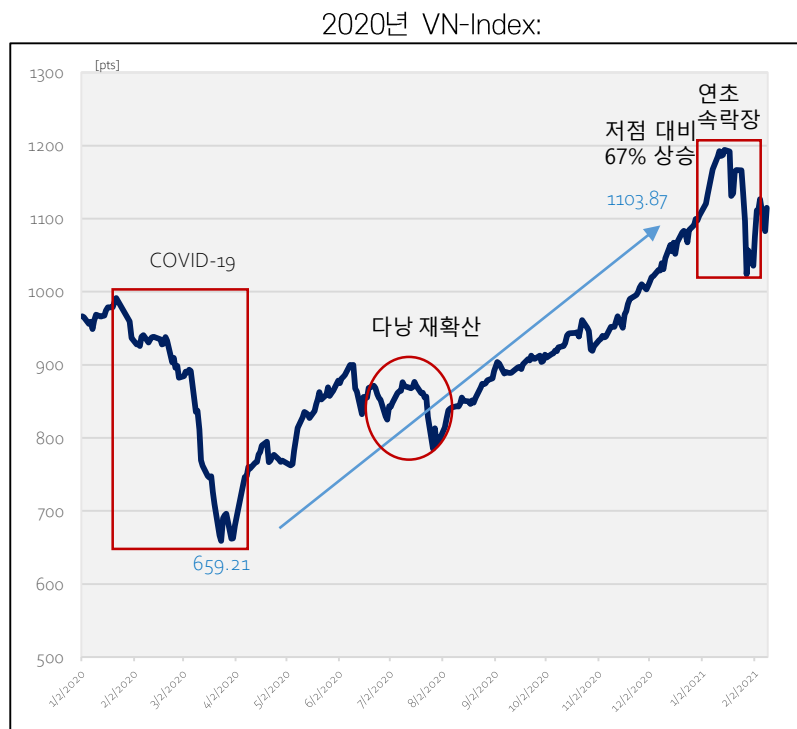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사업장장 역할을 하다 지난해 1월 베트남 사업확대를 위해 발령 받고 부임했습니다. 많은 계획과 목표가 있었지만 COVID를 만나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고 여러 극복 방안을 고민하고 수립해야 했습니다. 물론 물량감소로 경영목표 차질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납품을 위한 고객검사, 품질검사, 엔지니어 교육 등을 On-line체제로 신속하게 전환 대응하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장비설치와 제품개발을 위한 한국과 외국 기술자의 입국이 적기에 필요했는데 대사관, 코참, 상공회의소, 코트라, K-biz등 유관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큰 차질없이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관련기관과 단체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COVID상황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예측하기 힘들고 당장은 힘이 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새로운 사고로 체제를 개선하며 기회요인을 잘 찾고 활용한다면 더 큰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하여 베트남 내의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교민들끼리 잘 화합하여 현재 이곳 베트남에서의 해외 생활이 긴 인생 여정에서 의미 있고 보람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끝>



2021 베트남 증시, 이제는 실적을 확인할 차례!

신한금융투자 베트남법인장 한복희



자료: Bloomberg, SSV

2020년 1월 2일 종가 기준 966.67 pts로 출발한 베트남 시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3월 24일 종가 기준 최저치 659.21 pts를 기록하며 폭락했다. 폭락과 함께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지수는 회복하였고 저점 대비 67% 상승한 1103.87 pts로 2020년을 마감하였다.

최근에는 베트남도 주식투자 붐이 일어나고 있다. 주변에서 흔하게 주식투자에 관해서 얘기함을 볼 수 있고 휴대폰으로 주가 창을 확인하는게 여러 사람들의 일상이 되었다. 여러 참여자가 주가 상승의 혜택을 보니, 상대적으로 기회를 놓치는게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으로 비참여자들이 계좌개설을 하며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주가 상승 속도도 빠르다 보니 한편에서는 “과열이 아닌가?” 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베트남 증시는 과열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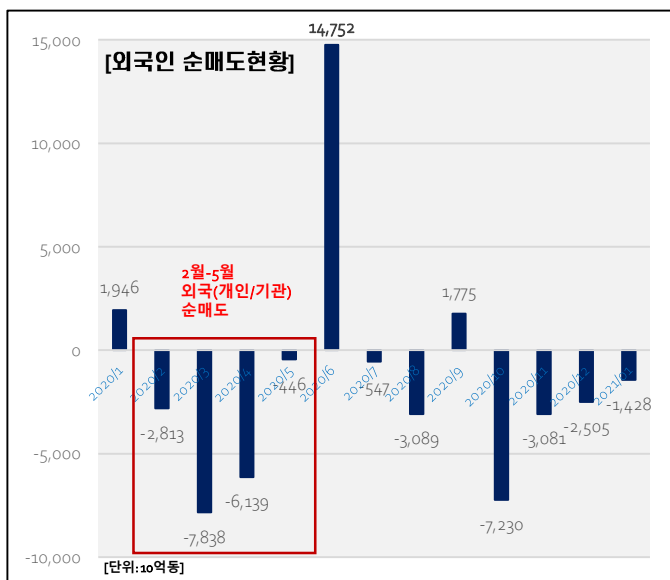
Part 1. 증시를 움직이는 두 가지의 힘: 유동성 & 실적

과열임을 판단하기 전, 2020년 베트남 증시가 어떠한 장세였는지 살펴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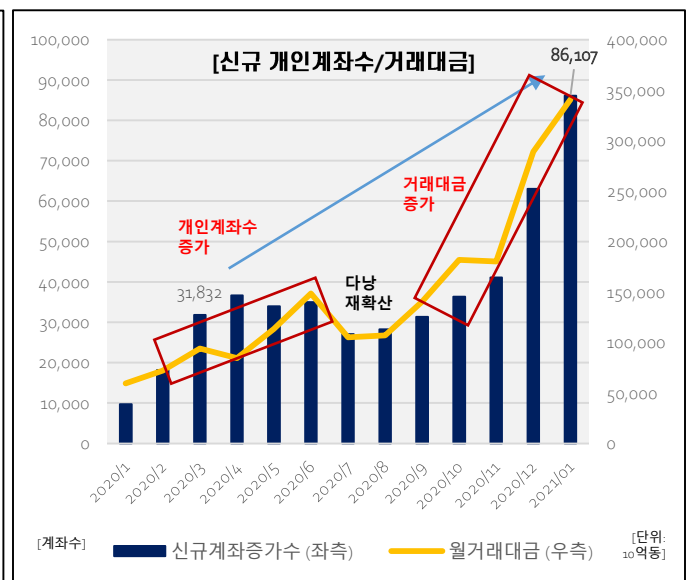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주요 증시 폭락 후 미국 FED의 양적 완화 정책 및 주요 국가들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세계 증시는 유동성에 의해 반등하였다. 베트남도 '20년 2분기 사상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0.4%)를 기록하였고 첫 3개월 동안 약 35,000개의 기업이 파산하였으나 신속한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으로 시장의 자금을 풀며 경기를 회복시키려 하였다. 이렇게 베트남에도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수 있었다.

자금의 출처를 세 가지 유형 [Savings (예/적금), Credit (신용), Income (소득)] 으로 쉽게 나누어 보면, 코로나 봉쇄조치로 인한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하락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유동성 장세를 촉발한 것은 Savings (예/적금) 그리고 Credit (신용)의 유입 및 증가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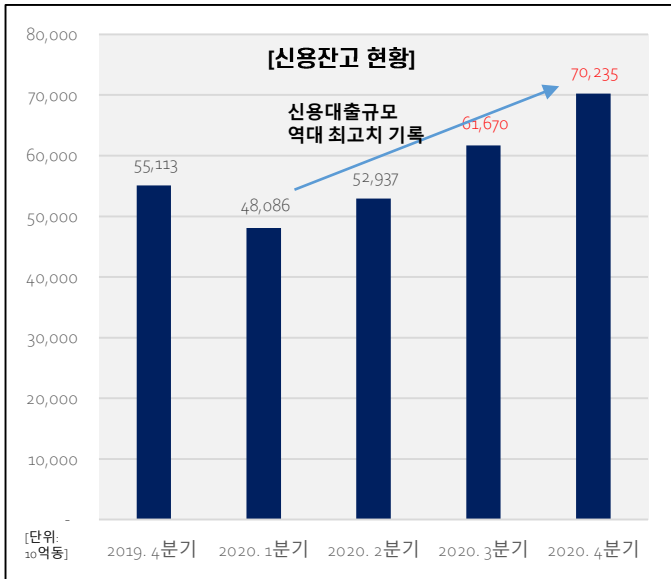
전세계적으로 봉쇄가 시작되던 2월을 본격적인 시작으로 경제 타격을 예상한 외국인의 매도물량이 5월까지 지속되었으나 매도물량을 받은 시장 반등의 주역은 단연, 개인들이었다. 낮아진 은행 예금금리에 3월부터 신규계좌증가수 및 월거래대금이 두배로 늘어나며 개인들의 Savings (예/적금) 자금이 들어왔고 '21년 1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8만 6천개의 베트남 개인계좌 수가 신규로 개설되며 지속적으로 개인들의 자금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Fiinpro, SSV



자료: Fiinpro, SSV



자료: Fiinpro, SS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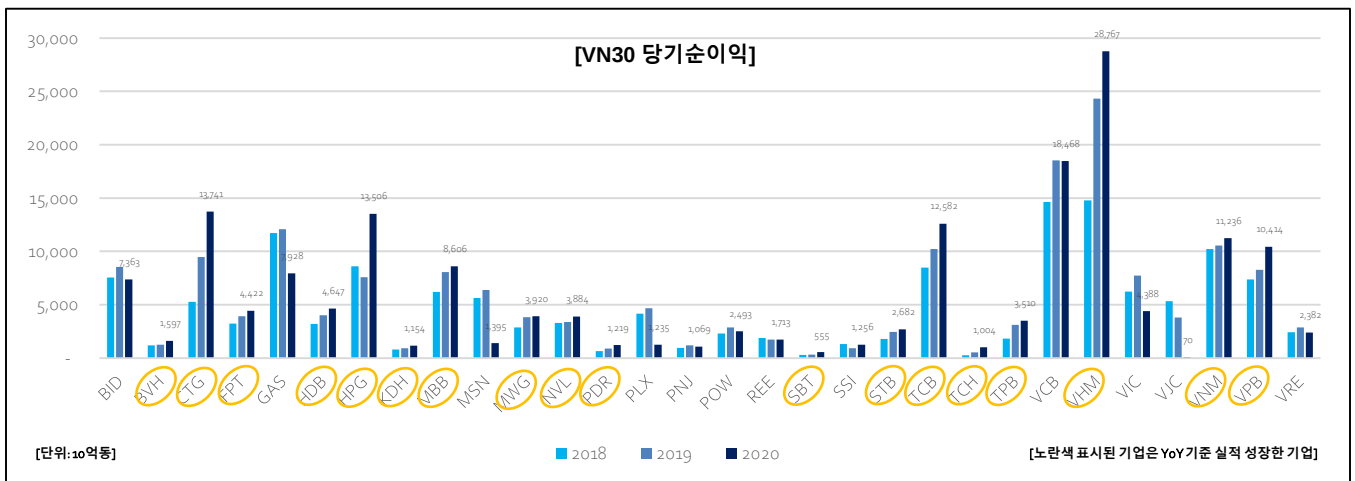
또한, 전년 대비 저렴하게 대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신용대출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시장에 더욱더 많은 자금 (Credit)이 유입되며 지수는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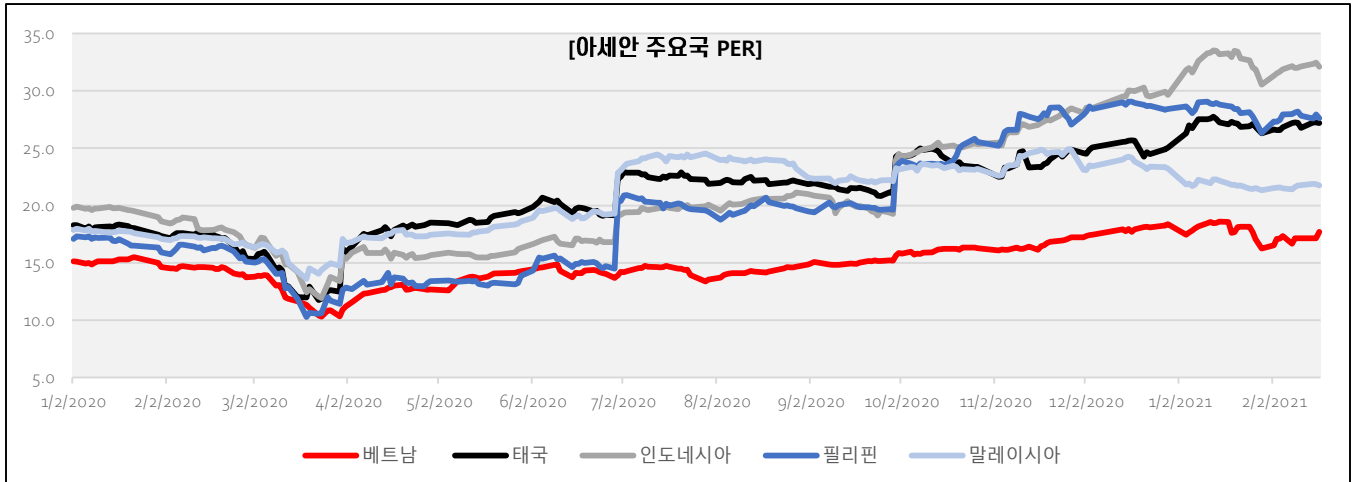
베트남 정부의 선제적 봉쇄조치로 인한 코로나 방역 성공, 소비 및 제조 회복세로 경제성장을 및 무역 수지 흑자 기록, 달러화 약세 국면 등 베트남 증시에 여러 가지 호재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 할 수 있었고 정부의 금리 인하로 개인의 참여 (Savings 예/적금 자금) 그리고 신용의 증가 (Credit) 가 쉽게 이루어지며 만들어진 유동성 장세가 2020년 베트남 증시였다.

Part II. 과열일까?

올해 들어 베트남 증시는 속락장을 경험하였다. 1월 28일 VN-Index 는 6.67% 낙폭 하며 2001년 이후 최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개인 중심으로 가파르게 오른 증시가 코로나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패닉셀링하는 위험 회피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이 과열로 보일 수 있으나 과열임을 판단하기 위해선 실적, 밸류에이션, 실물경제를 확인해야 한다.

1. 실적과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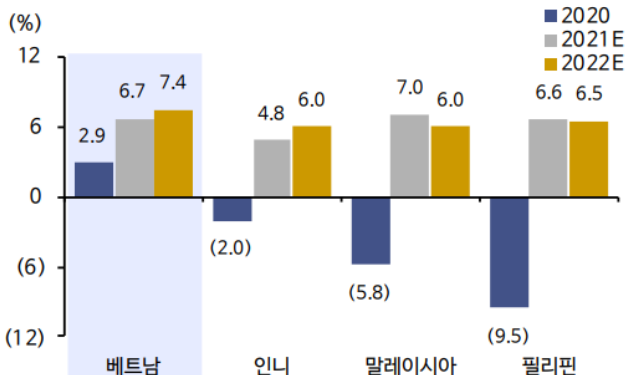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SSV

베트남 지수를 대표하는 상위 30개 기업인 VN30 기업들의 '20년도 실적을 확인해보면, 30개의 기업 중 19개 (63%)의 기업이 19년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상승하였다. 주식의 가격과 이익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비교해놓은 지표인 PER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동남아시아 주변국과 대비해보면 베트남은 아직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되며 GDP 대비 시가총액이 베트남은 아직 70%대 머물고 있음으로 (태국 105%대)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가 있는 시장이다.

2. 베트남의 2021년 경제성장률을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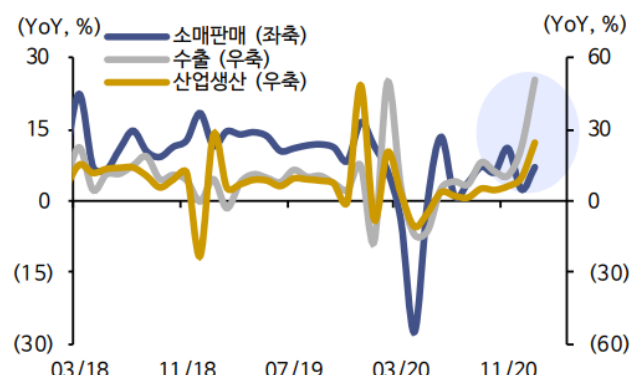
2020년 베트남은 경제성장률 및 무역 수지 흑자로 세계 주요국 중 중국과 함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였다. 현재 베트남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코로나 확진 방역, 백신 보급 및 경제 정상화 속도가 관건이지만 올해 IMF, ADB 등 주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 전망은 7%대로 양호하다. 글로벌 저금리 기조, 글로벌 공급망 이동의 수혜국, FDI 기업의 지속 유입, EVFTA 등 무역협정으로 인한 수출 증가 및 관련 산업 성장, 신규 기업법 및 투자법 등 정부 차원 노력 등 여러 긍정적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베트남의 성장 스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주요국 경제 성장률과 전망치



자료: IMF, 신한금융투자 / 주: 말레이시아 2020년은 전망치 기준

베트남 소매판매, 수출, 산업생산



자료: Refinitiv, 신한금융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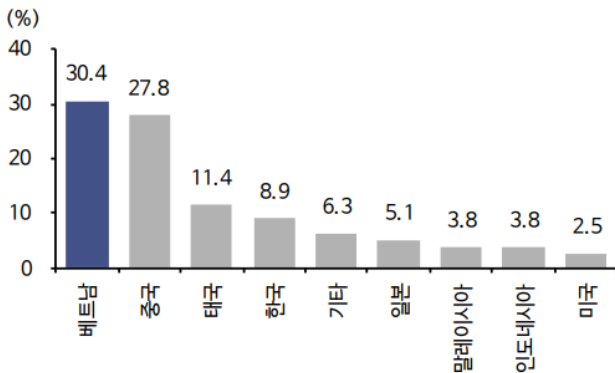


Part III. 2021년은 실적 장세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과 미국 FED의 기조, 역대 최고치 신용거래에 기댄 차익 실현 및 조정 시 반대매매 물량 출회 가능성 등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 및 변동성도 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 모멘텀 요인들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라가미 구니오의 증시 사계절 이론에 따르면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실적 장세가 시작된다. 이제부터는 유동성, 즉 돈의 힘보다는 기업 실적 개선이 증시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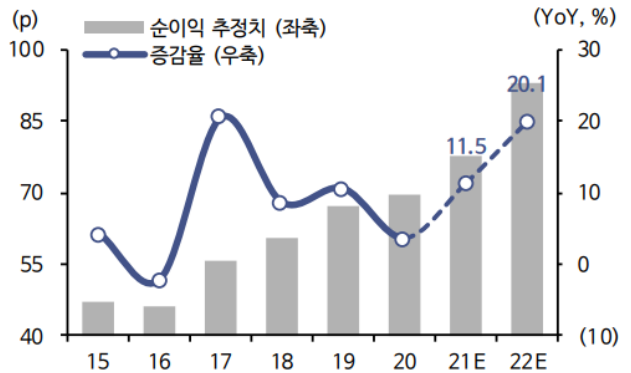
성장하는 신흥국으로써 베트남 증시는 주의해야 할 점들도 존재하지만, 기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올해와 내년 기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11.5%, 2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성장 폭이 확대될 전망이기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현재 진행형인 북부 코로나 상황 통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 변화,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영향, 외국인 순매도 지속 가능성, 시스템/제도적 문제점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것을 확인하며 일시적인 변동성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경기 회복과 더불어 이익이 복원되며 성장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할 시기라는 점이다. <끝>

향후 원자재/중간재 구입 희망국 서베이



자료: KOTRA, 신한금융투자 / 주: 글로벌 49개 기업 서베이

VN 지수 연간 순이익 추정치와 증감율



자료: Bloomberg, 신한금융투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기업법, 투자법, 노동법 외에 한국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베트남의 신법과 개정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PPP 법)

민관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은 정부와 민간이 책임과 수익을 나누어, 공공 인프라의 신규 건설/운영 또는 기존 시설의 운영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의 민관 협력 사업은 이를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법의 부재로 여러 관련 시행령에 의존해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민관 협력 사업 투자법(Law 64/2020/QH14; 이하 “PPP 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관련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한국 투자자는 건설과 운영을 묶어서 PPP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투자자 본인이 운영할 것이라면 부실시공도 줄어든 것이고, 처음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해 공사의 예산과 기간을 산정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PPP 법은 그 대상 사업을 (1)교통, (2)전력(수력 제외)과 송전, (3)상하수도, (4)의료, 교육 및 훈련, (5)정보통신 인프라의 5개 분야로 한정했습니다. 특히 사업 방식도, 기존 시행령에 포함되었던 BT(Build-Transfer) 방식은 제외하고, BOT, BTO, BOO 등의 7가지 방식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PPP 사업 수행을 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PPP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PP 프로젝트의 총투자자본금은 최소 2천억 동(한화 약 96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단, 의료, 교육, 훈련 PPP 프로젝트는 최소 1천억 동(약 46억 원) 이상), PPP 프로젝트에 따라 총투자자본금의 0.5~1.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1~3%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또, 베트남 정부 지분은 프로젝트별 최대 50%로 제한한 반면, 투자자의 출자 자본금은 총 투자자본금의 15% 이상이어야 하고, 자금 조달은 PPP 프로젝트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한국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 장치와 유사하게, 만약 실제 매출이 재무계획상 매출의 75% 미만이면 그 차액의 50%를 베트남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고, 실제 매출이 재무계획상 매출의 125%를 초과하면 반대로 베트남 정부가 그 차액의 50%를 사업시행자에게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이 재무계획상의 매출을 125%를 초과하는 경우와 75% 미만인 경우를 판단하는 조건이 달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베트남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유리한 쪽으로 적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건설법

개정 건설법(Law 62/2020/QH14; 이하 “2020 건설법”)이 2021년 1월 1일 발효되어서, 예전 건설법에서 착공/시공 시 요구되었던 자본규제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건설허가서 발행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20일 이내로 단축되었고, 건설 허가 면제 대상이 추가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전 건설법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예비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 보호법에 따라 요구하는 등 건설 투자로 인한 환경 영향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었습니다.

(3) 환경 보호법

2022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개정 환경 보호법(Law 72/2020/QH14)을 보면, 현행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환경 영향 평가 및 환경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투자 사업을 분류하여 규정했고, 7가지 허가를 모두 하나의 환경 허가로 통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실제 제재를 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4) 증권법

2019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국지수 편입에 실패했었던 베트남은 영문경영정보 공개 미흡, 역외통화시장 부재, 외국인 지분 제한 등 개방의 정도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불평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습니다. 기업법과 투자법 개정과 함께 증권법도 개정하면서 MSCI의 지적사항을 해결할 기본적인 큰 법적 틀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5년부터 법적으로는 상장사 주식을 외국인이 100% 소유할 수 있었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해서 현실적으로 주식취득이 쉽지 않고,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관련 내용도 개정 증권법에서 제외되어서 MSCI의 지적사항을 정말 해결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 2021년 1월 1일 발효된 개정 증권법(Law 54/2019/QH14; 이하 “개정증권법”)의 구체적인 하부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실제로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정증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에게 회사채를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등 회사채 발행요건이 까다로워졌고, IPO 및 공개매수와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설립 조건도 어려워지는 등 전체적으로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증권위원회의 조사·감독 권한이 강화되었고, 증권법 규정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되었던 최대 10억 동(한화 약 4,800만 원)의 과태료가 15억 동(약 7,200만 원)으로, 기관은 최대 20억 동(9,600만 원)에서 30억 동(약 1억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불법수입금액의 최대 10배로 높였고, 행정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말 응우옌 쑤언 폭 베트남 총리는 그동안 나누어져 운영된 하노이와 호찌민 증권거래소를 통합한 베트남 증권거래소(VNX) 설립을 최종 승인하는 결정서(Decision 37/2020/QĐ-TTg, 2021년 2월 20일 발효)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경제도 회복세이고 증시도 선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개정증권법이 하부 규정을 통해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기 좋은 방향으로 실제 적용되어 이른 시일 내에 베트남 증시가 MSCI EM(신흥시장) 지수에 편입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 언론, 출판, 인터넷, SNS 관련 규제

베트남 국민 평균 나이가 32.5살의 젊은 나라라서 그런지, 베트남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용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국가의 특성상 언론 통제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듯한 SNS와 인터넷 관련 규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2020년 12월 1일 발효된 언론 및 출판 활동 관련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시행령(Decree 119/2020/ND-CP)에서는 동의 없이 개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배포/출판하는 행위와 개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 그리고 베트남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뉴스/기사/사진의 게시와 배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취재 활동에 대한 불법적인 방해 행위와 기자 사칭에 관한 과태료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특히 동 시행령 제8.3.c조에 따라 베트남 지도 이미지를 사용할 때 베트남 주권 표시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최대 3천만 동(약 144만 원)의 높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한국분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도 외국인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면 기분 나쁘겠지요.

2021년 2월 5일 하노이 법무국에서 공표한 코로나-19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Official Letter 333/STP-PBGDPL)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자에게 행정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법 288조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 처벌도 가능하다고 명시했습니다. 2020년에 자기 동네에 코로나가 퍼졌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베트남 여성에게, 많은 사람이 읽기도 전에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베트남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6) 헬스케어, 의료, 코로나-19 관련 규제

2021년 2월 5일 하노이 법무국에서 공표한 코로나-19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Official Letter 333/STP-PBGDPL)을 보면, 마스크 미착용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불이행에 대해서는 최대 3백만 동(약 14만 원), 사용한 마스크를 아무 데나 버리면 최대 7백만 동(약 3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 책임자가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에는 형법 360조의 직무유기죄를 적용해 최대 12년형, 그리고 약의 효력을 속일 때는 형법 174조에 따라 최대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2020년 11월 15일 발효된 건강 분야 행정 위반 처벌에 대한 시행령(Decree 117/2020/ND-CP)을 통해 의료 진단과 치료에 미신 행위를 하는 행위와 태아 성별 확인을 위해 점괘를 보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일과시간에 술을 마시거나 타인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베트남 노동법상 근로자 해고 사유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jchoi@alfcounsel.com

베트남에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노동법이 존재한다. 코로나 사태 등 여러 경영상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회사)측에서 베트남 근로자를 임의로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주지하여야 하는 노동법상 관련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베트남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베트남 노동법 및 관계 법령을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위 질의자의 경우는 사용자(사측)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고려 시 법적 사유에 해당이 되는 지 여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노동법 제38.1조에 의거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는 크게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 객관적 상황에 의한 해고, 직장 내 징계의 결과로서의 해고로 나눌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특히 일방적 해고와 기타 사유에 따른 해고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는 근로자의 잦은 업무 미수행,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 불가능 상태, 자연재해, 화재,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생산 범위 하향 조정 및 구조 조정 등 크게 4가지 경우에 해당될 시에 가능하다.

첫번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잦은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2015년 베트남 정부 시행령에 따라서 해당 사유로 인해 해고 시 사용자는 베트남 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완료를 평가하는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업무 완료 평가 기준은 내규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해고 전 근로자 조합(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 업무 미수행으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시 과연 사용자측에서 이미 내규(취업규칙)상 업무 완료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고 결정으로 귀결되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법적으로 허용된 병가 기간을 초과한 기간 동안 업무가 불가능할 경우에 해고가 가능하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기간은 근로계약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정규직의 경우 최대 연속 12개월, 근로계약에 기한이 정해진 계약직의 경우 최대 연속 6개월, 계절직 고용 또는 고용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특정 업무를 위한 고용일 경우 근로계약상 기간의 절반까지 가능하다. 근로자가 허용된 병가 기간 이내로 건강을 회복해 업무 복귀가 가능할 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개를 고려해야만 한다.

세번째, 사용자가 자연재해, 화재,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해 생산 범위를 하향 조정하고 직원의 수를 축소해야 할 경우, 즉 구조조정 사유에 해당될 시 해고가 가능하다. 불가항력적 사유로는 적국에 의한 공격, 전염병, 관할 당국의 요구에 따른 생산 범위 축소 및 사업장 위치의 이전으로 정의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위와 같이 공장의 생산 범위 하향 조정애 따른 인력 감축을 하는 경우, 적법한 구조조정 요건에 부합하는지, 부합할 경우, 관련 절차상 법상 위반소지가 없는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네번째,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일시 중단 이후 결근할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군 복무, 유치, 구류, 임신 및 양측이 합의한 기타 사유로 인해 근로 계약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해당 중단 기간이 만료된 이후 근로자가 15일 이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비교적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유로 해고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상황으로 인한 해고는 베트남 노동법 제44조와 제55조에 따라 구조 및 기술 변화, 경제적 사유, 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의 3가지 경우에만 가능하다. 객관적 상황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의 경우 근로자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첫번째, 구조 및 기술 변화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 구조 및 기술 변화는 조직 구조의 변화, 고용의 재조직, 제품 또는 제품 구조의 변화, 사용자의 사업 활동, 제조와 관련이 있는 기술 공정, 기계, 제조 장비의 변화로 정의된다.

두번째, 경제적 사유로 인해 해고가 가능하다. 경제 위기 또는 불경기가 닥칠 경우, 또는 정부의 경제 재구조화 또는 국제 양허안 적용 정책 시행에 따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조 및 기술 변화나 경제적 사유로 인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는 베트남 노동보훈 사회국에 공지를 해야만 한다.



세번째, 회사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회사를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후임 사용자는 현존하는 인력을 계속 고용하며 근로 계약을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한다.

나아가, 사용자가 모든 근로자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후임 사용자는 인력 활성화 계획을 작성 및 적용해야 한다. 자산 소유권 또는 기업 사용권 이전의 경우, 후임 사용자가 아닌 전임 사용자가 인력 활성화 계획을 작성 및 적용해야 하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인력 활성화 계획은 계속 고용될 근로자, 계속된 고용을 위해 재훈련을 받을 근로자, 은퇴할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지정될 근로자 및 근로계약이 해지될 근로자의 수 및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베트남 내 법인의 인사노무관리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하여 숙지하고 베트남 노동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개별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달리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베트남 노무당국 조사 및 처벌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베트남 노무 실무특성상 지역시성별 해석 차이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 <끝>



베트남 중부 유망 투자지역 안내 - 다낭시

□ 다낭시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	• 면적: 1,285km² • 인구: 1,695,000명('20년) • 도시거주 비율: 87.3%
지정학적 위치	• 하노이로부터 770km, 호치민으로부터 858km 거리에 위치 • 동서경제회랑(EWEC)과 1번 국도(남북)가 교차하는 물류 거점
접근성	• 국도 1A와 국도 14B가 주변에 있으며 하노이와 직접 연결 (약 14시간)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다낭 공항 직항 노선 (약 1시간 20분)
GRDP 성장률 / 1인당 GDP('20년)	• 전년대비 성장률: -9.77% • 성 1인당 GDP: US3,709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0년)	• 총수출액: US15.38억 달러 / 총수입액: US12.12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공업/건설업(-12.23%), 서비스업(-8.21%), 농수산업(2.4%)
산업구조('20년)	• 공업/건설업: 21.7%, 서비스업: 65.5%, 농수산업: 2.3%
노동여건('20년)	• 노동 가능연령 인구 비율: 55% • 노동 가능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48%
최저임금('20년)	VND3,920,000=US170 달러(2급지)
외국인투자 ('20.11월말 기준)	• 다낭시 내 총 외국인투자는 881개 프로젝트, US37.07억 달러 • (한국) 230개 프로젝트 총 US377백만 달러, 다낭시에 투자한 국가 중 4위

□ 투자환경

○ 뛰어난 접근성 및 물류인프라

다낭시는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 허브 중 하나임. 다낭시에는 국제 공항, 심해 항구, 남북 도로 및 철도가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이동 및 물품 운송이 원활하며, 이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 활동, 투자 및 관광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항만)** 다낭항은 베트남 중부에 위치한 현대식 컨테이너항으로 베트남 최대의 상업항들 중 하나이며, 다낭항에서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대만, 유럽과 미주까지 직항로가 있음. 또한 다낭 항구는 관광 목적 유람선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목적지들중 하나임
- **(항공)** 다낭 국제공항은 주당 480편 이상의 국제선이 운항하는 베트남에서 가장 크고 현대적인 3대 공항 중 하나임

다낭시는 국제와 국내간 온라인 연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통합 인프라를 갖춘 현대적인 통신 허브를 구축하고 있음. 다낭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낭 Wi-Fi 네트워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약 430개의 액세스 포인트가 있어서 조직과 개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 시스템을 제공함

- 다낭시는 국내 간선 네트워크 축의 가장 중요한 3대 터미널 중 하나이며 국제간 직접 연결 지점임
- 최대 40.3 Tbps의 총 용량으로 APG 및 SMW3 국제 해저 광케이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국제 표준의 정보 및 통신 기술 인프라: 수도권 네트워크 (MAN); 데이터 센터; 도시 전역의 무선 연결 시스템 (Wifi); 정보 통신 응용 연구 교육 센터를 갖추고 있음



○ 관광

베트남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다낭시는 매력적인 천연 자원과 해양 자원, 숲, 풍경, 문화 및 예술 작품과 같은 귀하고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유산을 가지고 있음. 다낭시는 수많은 매력적인 관광여행지가 있으며, 그중에 오행산(Marble Mountain), 바나 관광지, 선짜반도 및 조각박물관 등이 유명함.

다낭 관광의 장점은 90km 해안선으로 고운 백사장, 온화한 물결, 일년 내내 따뜻한 바닷물, 수심이 깊지 않고 파고의 높은 안전성 등임. 전형적인 해변으로는 미케 해변 (포브스지 [The Forbes] 선정 지구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6개의 해변들 중 하나), Pham Van Dong 해변과 Non Nuoc 해변임. 관광객들은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으며, 오행산(Marble Mountain) 관광, 수공예 마을 방문, 고급 리조트 방문 등을 할 수 있음.



○ 인센티브 정책 지원:

구분	투자지역, 분야	법인세/토지세	감면, 면제 기간
하이테크 파크	6개의 투자 우선 분야: • ICT 산업 • 재생에너지, 나노 기술, 신소재 • 자동화 및 정밀 기계 • 환경 기술, 석유 화학 기술 및 기타 특수 산업 • 생명 공학 •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메카트로닉스, 광전자	법인세 우대 세율 10%	• 최초 4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 15년(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 최대30년(3조동 이상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
		토지세 프로젝트의 전체 기간 동안 토지 임대 면제	15년 혹은 19년(프로젝트의 특징에 따름)
정보 기술 파크 (DITP)	IT, 전자-통신	법인세 우대 세율 10%	• 최초 4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 15년(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토지세 프로젝트 개발사의 인센티브: 투자 유형 및 규모에 따른 토지 임대 면제	5~50년

투자지역, 분야	수입세	감면, 면제 기간
고정자산 투자용 설비, 기계 수입 시	수입세 면제	
수출용 재화 생산용 원부자재 수입 시	수입세 면제	5년간
일반공단, 경제특구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투자 시	신용 대출 우대 적용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0년 12월까지 총 881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37.07억 달러 누적 투자

○ 한국계 투자

2020년 12월 누계, 한국기업의 투자는 총 230개 프로젝트에 걸쳐 377백만 달러 규모이며, 다낭시에 투자하는 국가 중 4위를 차지하고 있음



○ 다낭시 내 10대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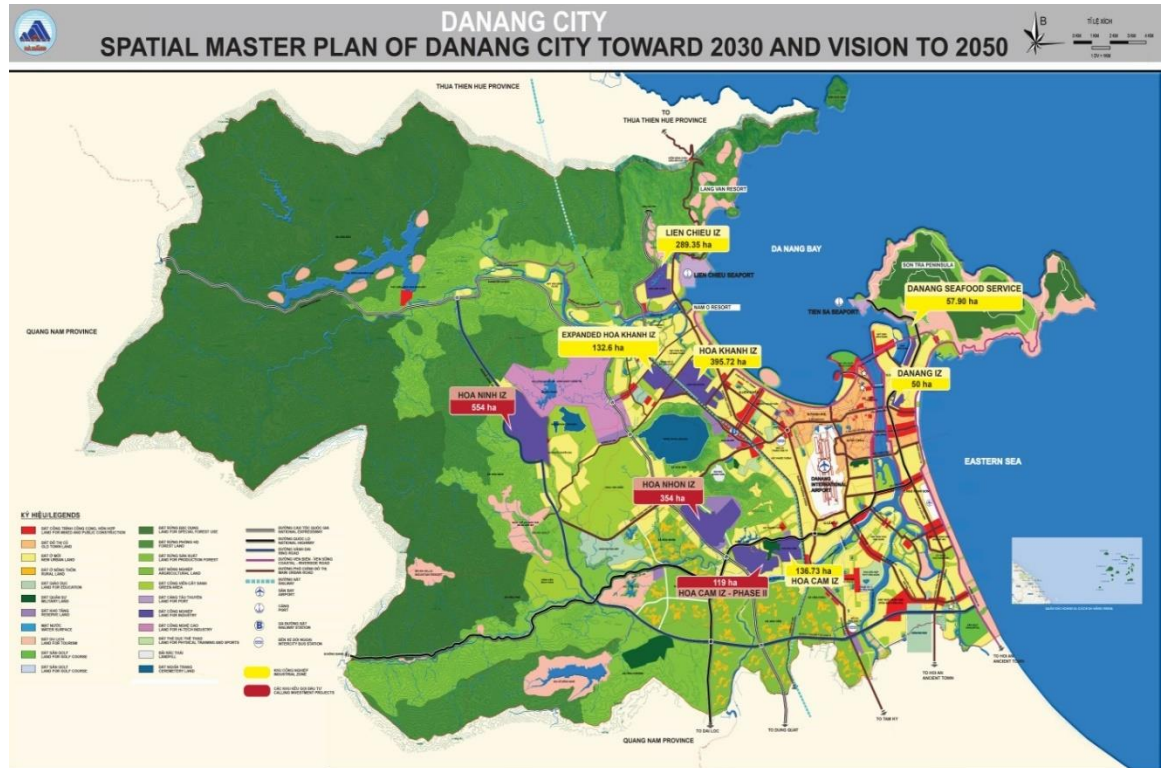
순번	프로젝트명	내용	투자국	투자금액(달러)
1	Silver Shores Investment and Development Co., Ltd	국제 관광 및 엔터테인먼트 지역 개발, 상금이 있는 비디오 게임, 호텔 건설	미국	343,716,299
2	Heineken Vietnam Brewery - Danang Co., Ltd	맥주 및 기타 무알코올 음료 생산, 창고 및 사무실 임대	싱가포르	222,877,004
3	Sunshine 항공 우주 부품 공장(Universal Alloy Corporation Vietnam Co., Ltd)	알루미늄 합금 및 복합재료로 만든 항공 우주 부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을 위한 공장 건설 투자	싱가포르	170,000,000
4	American Pacific University (APU Educational Development Co., Ltd)	사립대학	미국	150,000,000
5	Viet Hoa 전자 부품 공장 (Viet Hoa Electronics Co., Ltd)	중주파 변압기, 코일, 전기 필터, 센서, 전자 부품 제조 및 조립	일본	119,000,000
6	오행산 비치 리조트 (Marble Mountain Beach Resort JSC)	비치 리조트, 호텔, 임대 아파트 사업	케이맨 제도	116,250,000
7	Capital Square 3	부동산 개발	싱가포르	111,200,000
8	Mikazuki Spa & Hotel Resort(ODK Mikazuki Viet Nam Co., Ltd)	관광 및 부동산 사업	일본	103,270,224
9	Coca-Cola Beverages Viet Nam Limited 지점	음료 생산	싱가포르	100,989,365
10	True Friends Park-Blooming Tower (Korea Investment & Development Co., Ltd)	고층 아파트, 오피스 빌딩, 상업 건물, 주차장, 엔터테인먼트 및 스포츠 공사 단지의 투자, 건설 및 사업	한국	90,000,000



□ 공단 현황

○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주요정보	투자자
1	Hoa Khanh	1996년	- 총면적: 394ha - 입주율: 100% - 다양한 분야	Daizico Company
2	Expanded Hoa Khanh	2001년	- 총면적: 132.6ha - 입주율: 93% - 다양한 분야	Saigon – Danang Investment Corporation (SDN) (dananginvest.com)
3	Lien Chieu	1996년	- 총면적: 289.35ha - 입주율: 57% - 다양한 분야	Saigon – Danang Investment Corporation (SDN) (dananginvest.com)
4	Hoa Cam	2003년	- 총면적: 149.84ha - 입주율: 97% - 다양한 분야	Hoa Cam Industrial Zone Investment JSC (hoacamizi.com.vn)
5	Da Nang	1993년	- 총면적: 50.1ha - 입주율: 100% - 다양한 분야	Massda Land Co., Ltd
6	Da Nang Seafood Service	2001년	- 총면적: 50.63ha - 입주율: 100% - 주요 산업: 수산 가공, 조선, 어항 물류	Daizico Company
7	Da Nang Hi-tech Park	2010년	- 총면적: 1,128.4ha - 베트남 국립 3대 다기능 하이테크 공단 중 하나이며 베트남 중부에서 유일한 국립 하이테크 공단임 - 국내외 하이테크 자원 유치, 하이테크 개발 원동력 창출	다낭시 인민위원회 산하
8	Da Nang Information Technology Park (DITP) (단계1)	2020년	- 총면적: 131ha - 분야: IT, 전자-통신 - 단계2: 210ha, 5년 내 건설 예정 (2019-2023)	Danang IT Park Development JSC (danangitpark.com.vn)



□ 투자 유망분야

- 첨단 기술 산업 (전자-메카트로닉스, 통신, 자동화, 정밀 공학, 생명 공학, 신소재), 정보 기술, 지원 산업(기계·정밀 공학)
- 고품질 서비스 산업: 해양 서비스, 상업, 교육-훈련, 고품질 의료 서비스, 물류, 금융 은행, 관광
- 첨단기술 응용 농업 생산
- 혁신 프로젝트들
- 핵심 및 전략적 인프라 프로젝트: 항구, 공항, 기차역, 폐기물 처리 및 환경, 스마트 시티 구축 등

□ 다낭시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DA NANG INVESTMENT PROMOTION AGENCY (IPA Da Nang) 다낭시 투자촉진국	Mrs. Huynh Lien Phuong (국장)	Tel: +84-236-381-0054 Mobile: +84-905-211-755 Email: ipa@danang.gov.vn Website: investdanang.gov.vn
DA NANG HI-TECH PARK & INDUSTRIAL ZONES AUTHORITY 다낭시 하이테크 파크 및 공단 관리위원회	Mr. Pham Truong Son (실장)	Tel: +84-236-366-6117 Mobile: +84-903-502-131 Email: dhpiza@danang.gov.vn/ sonpt@danang.gov.vn Website: dhpiza.danang.gov.vn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1988. 01. 01~2021 1.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1. 20		
국가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 국	8,976	70,489.54	11	49.86	97.18
일 본	4,644	60,468.01	3	5.4	49.26
싱가포르	2,647	57,294.94	10	544.71	680.71
대 만	2,798	33,770.12	2	6.5	20.8
홍 콩	1,953	26,206.20	4	210.89	221.27
버진아일랜드(영)	868	22,169.16	-	-	4.01
중 국	3,144	19,173.67	9	270.63	618.03
말레이시아	645	12,954.92	-	-	0.82
태 국	605	12,602.92	1	6.33	9.27
네덜란드	375	10,498.71	1	80.61	98.12
미 국	1,081	9,511.75	2	110.8	122.16
전체 합계	33,165	386,009.53	47	1,323.54	2,016.57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2021. 01. 20 기준 누계		2021. 01. 01 ~ 01. 20		
연번	산업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163	228,058.23	35	1,056.94	1,539.78
2	부동산경영	945	60,498.70	3	149.12	178.96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51	28,607.84	-	-	23.63
4	호텔, 외식서비스	890	12,506.83	-	-	4.97
5	건설	1,755	10,675.08	-	-	0.36
6	도소매, 유지보수	5,203	8,519.57	1	0.86	21.24
7	물류운수	881	5,501.77	3	107.52	111.9
8	채광	108	4,897.63	-	-	-
9	교육, 양성	586	4,412.37	1	0.32	0.73
10	정보통신	2,336	3,970.73	2	1.09	4.44
11	농, 임, 수산	506	3,769.90	1	7.65	60.44
12	예술 오락	3,551	3,686.19	-	-	0.25
13	기술과학전문	138	3,391.52	1	0.05	48.91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1	2,926.02	-	-	-
15	의료와 사회복지	153	1,999.82	-	-	-
16	행정, 지원 서비스	491	975.86	-	-	2.67
17	기타서비스	144	847.65			
18	금융, 은행, 보험	76	752.76	-	-	18.29
19	기타산업					
합계		33,165	386,009.53	47	1,323.54	2,016.57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8	2019	2020	2021.1
수출	2,447.2	2,634.5	2,814.7	277.0
수입	2,375.1	2,535.0	2,624.0	264.0
무역수지	72.1	99.5	191	13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1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0,003	51,827	50,880	5,800
섬유/직물제품	30,447	32,571	29,478	2,600
전기전자제품/부품	29,446	35,591	44,668	4,000
기계/플랜트 및 부품	16,528	18,304	27,042	3,200
신발류	16,297	18,299	16,551	1,800
수산물	8,831	8,572	8,384	600
목제품	8,855	10,526	12,323	1,250
수송수단 및 부품	7,985	8,500	9,058	800
철강제품	4,558	4,160	3,035	300
채소	3,822	3,764	3,259	260
기타	67,951	71,337	76,793	7,090
합계	243,483	264,189	281,471	27,700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목명	2018	2019	2020	2021.1
전자제품 및 컴퓨터	42,501	51,550	63,973	5,500
기계/플랜트 및 부품	33,715	36,640	37,353	4,100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6,010	14,666	16,565	2,600
의류(원단)	12,914	13,329	11,802	1,150
철강제품	9,896	9,485	4,526	430
플라스틱 원료	9,097	9,012	8,323	967
유류제품	7,614	1,047	1,056	85
기타 금속	7,317	6,407	6,080	670
플라스틱 제품	5,906	6,526	7,238	710
직물 및 의류 원부자재	5,741	5,886	5,316	520
기타	86,801	98.96	100,175	9,668
합계	236,687	253,070	262,407	26,400

자료원: General Statistics Office / 2018년 순위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
1	미 국	41,608	47,526	61,347	77,077	8,183
2	중 국	35,463	41,268	41,414	48,905	4,652
3	일 본	16,841	18,851	20,413	19,284	1,740
4	한 국	14,823	18,205	19,720	19,107	1,837
5	홍 콩	7,583	7,955	7,156	10,437	969
6	네덜란드	7,106	7,076	6,881	6,999	710
7	독 일	6,364	6,869	6,555	6,644	659
8	인 도	3,756	6,542	6,674	5,235	645
9	영 국	5,424	5,776	5,758	4,955	598
10	태 국	4,786	5,494	5,272	4,917	512
	기 타	77,115	79,161	82,999	79,095	8,040
	합 계	213,770	244,723	264,189	282,655	28,545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7	2018	2019	2020	2021.1
1	중 국	58,229	65,438	75,452	84,187	9,156
2	한 국	46,734	47,497	46,935	46,895	4,753
3	일 본	16,592	19,011	19,526	20,341	1,679
4	대 만	12,707	13,228	15,173	16,701	1,764
5	미 국	9,203	12,753	14,365	13,713	1,130
6	태 국	10,495	12,023	11,656	10,968	1,011
7	말레이시아	5,860	7,450	7,291	6,575	730
8	인도네시아	3,640	4,918	5,703	5,382	520
9	싱가포르	5,301	4,524	4,091	3,670	387
10	인 도	3,940	4,147	4,538	4,435	495
	기 타	38,395	46,523	48,341	49,833	4,834
	합 계	211,096	237,512	253,071	262,700	26,45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 2018년 순위 기준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1
수 출	47,749(46.3)	48,629(1.8)	48,178(-0.9)	48,543(0.8)	4,637(13.6)
수 입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2,035(10.2)
무역수지	31,573	28,997	27,107	27,964	2,602

자료원: KITA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1
반도체	9,235(101.9)	10,939(18.5)	10,730(-1.9)	11,501(7.2)	1,074(1.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7,367(193.0)	8,909(20.9)	7,970(-10.5)	9,552(19.9)	1,089(56.3)
무선통신기기	3,286(-36.7)	2,632(-19.9)	2,933(11.4)	3,467(18.2)	312(22.1)
기구부품	2,612(57.7)	2,332(-10.8)	2,230(-4.4)	2,250(0.9)	207(0.9)
석유제품	1,978(81.0)	1,980(-0.4)	2,194(11.0)	1,195(-45.6)	104(0.7)
합성수지	1,442(19.8)	1,659(15.1)	1,624(-2.1)	1,615(-0.6)	170(25.6)
플라스틱 제품	1,152(54.9)	1,205(4.6)	1,210(0.4)	1,115(-7.9)	99(-2.2)
편직물	1,118(3.8)	1,106(-1.0)	996(-10.0)	851(-14.6)	65(-12.3)
철강판	985(20.1)	1,049(6.5)	1,158(10.4)	1,052(-9.1)	94(-5.4)
광학기기	794(81.7)	944(18.9)	946(0.2)	947(0.1)	72(5.2)
기 타	18,808	15,874	16,187	14,998	1,351
합 계	47,749(46.3)	48,629	48,178(-0.9)	48,543(0.8)	4,637(13.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한국의 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7	2018	2019	2020	2021.1
무선통신기기	3,964(26.0)	4,835(21.4)	5,691(17.6)	4,980(-12.5)	499(16.3)
의류	2,874(17.4)	3,570(24.2)	3,646(2.1)	3,146(-13.7)	268(-13.8)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604(976.6)	1,137(88.3)	1,197(5.2)	1,027(87.1)	32(-56.6)
신변잡화	797(24.2)	980(23.1)	1,053(7.4)	1,029(-2.2)	17(-15.8)
목재류	511(19.4)	793(55.1)	657(-17.1)	632(-3.9)	64(12.9)
컴퓨터	560(1.4)	534(-4.6)	679(25.9)	1,270(87.1)	243(181.6)
기구부품	496(89.9)	445(-10.4)	512(15.1)	481(-5.9)	51(9.0)
산업용 전기기기	317(10.3)	416(31.1)	479(14.8)	574(20.0)	58(36.2)
반도체	374(203.7)	396(5.8)	471(19.1)	561(18.9)	42(-33.6)
영상기기	400(17.7)	329(25.6)	356(-2.0)	406(14.0)	50(30.7)
기 타	5,279	6,197	6,330	6,473	711
합 계	16,176(29.5)	19,632(21.4)	21,071(7.3)	20,579(-2.3)	2,035(10.2)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2018년 순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0~2021년 주요 경제지표 >

구 분		시 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19년(연간)	%	0.7	5.9	4.3	5.02	7.02
		2020년(연간)	%	△5.4	△9.5*	N/A	△2.1	2.91
		2021년 1Q	%	4~6*	N/A	N/A	N/A	4.46*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100	N/A	114.6	148.65	9.1
		2020년(연간)	-	N/A	N/A	N/A	147.1	3.4
		2021년 1월	-	N/A	△13.8	N/A	N/A	22.2
	구매관리지수 (PMI)	2019년(연간)	-	N/A	51.6	105.2	50.1	N/A
		2020년(연간)	-	N/A	N/A	N/A	44.7	N/A
		2021년 1월	-	N/A	52.5	N/A	52.2	51.3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19년(연간)	-	100	N/A	86.2	124.3	N/A
		2020년(연간)	-	N/A	N/A	N/A	93.6	N/A
		2021년 1월	-	N/A	N/A	N/A	84.9	N/A
	소매판매	2019년(연간)	-	N/A	N/A	139.5	228.2	11.8
		2020년(연간)	-	N/A	N/A	N/A	198.5	2.6
		2021년 1월	-	N/A	N/A	N/A	N/A	6.4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19년(연간)	%	N/A	2.5	0.7	3.0	2.79
		2020년(연간)	%	△0.5~0	N/A	N/A	2.0	3.23
		2021년 1월	%	N/A	4.2	N/A	1.6	1.0
투자	고정자산투자	2019년(연간)	%	1.0	N/A	1.4	4.5	7.2
		2020년(연간)	%	N/A	N/A	N/A	△5.0	△25
		2021년 1월	%	N/A	N/A	N/A	N/A	△62.2
고용	실업률	2019년(연간)	%	2.3	5.1	3.3	4.7	1.98
		2020년(연간)	%	3.7	10.4	N/A	7.7*~9.2*	2.48
		2021년 1Q	%	N/A	N/A	N/A	7.7*~9.2*	N/A
무역	수출증가율	2019년(연간)	%	△4.2	1.5	△1.7	△0.9	8.1
		2020년(연간)	%	△3.2	△10.1	N/A	△2.2	6.5
		2021년 1월	%	1.1	N/A	N/A	12.2	50.5
	수입증가율	2019년(연간)	%	△2.1	△4.8	△3.5	△7.4	7.0
		2020년(연간)	%	△7.4	△23.3	N/A	△16.9	3.6
		2021년 1월	%	△5.2	N/A	N/A	△6.5	41.0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3. FTA 의의 및 효과

1. Introduction to FTAs

다들 우리나라가 FTA 강국이라고 하는데

FTA가 뭐가 좋은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 간단한 건데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같은 물건을 같은 품질, 같은 가격에 생산한다고 쳐

네

100\$ 100\$

그런데 A국과 C국은 FTA를 맺었고 B국과 C국은 안 맺었고 그럼 A국은 FTA 협정에 따라 관세를 안 물거나 적게 내는데

B국은 FTA 협정이 없으니 관세를 내야 하는 거지 그럼 C국은 어떤 물건을 사겠어?

이게 FTA의 상품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한 건데

이것 말고도 서비스 무역 확대, 통관절차 간소화, 기술장벽의 완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가간 교역을 원활화하기 위한 약속이지

그럼 전 세계 모든 국가와 FTA를 빨리 맺어야겠네요. 안 맺는 게 바보잖아요?

실제론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2. Benefits of FTAs

FTA를 맺는다는 건 우리나라도 협상 결과에 따라 상대국에 대하여 시장 개방을 해야 하니까 협상 상대국의 주요 수출입 품목, FTA 체결이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섬세하게 고려해서 맺어야 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서 정부에선 브렉시트도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서

검계가 영국 너 변화해도 등으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영국과 신속한 FTA 체결을 이뤄냈지

3. The process of signing an FTA

최근 영국과 FTA를 맺은 이유도 그기 때문이야

네? 영국과는 이미 맺고 있지 않았어요?

그건 영국이 EU 가입국이었을 때 이야기지, 브렉시트를 했잖아

아...

예를 들어 영국과 교역을 할 때는 지금까지 한-EU FT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았는데,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그런 혜택이 중단되는 거지

그럼 지금 한-영 FTA를 활용해서 영국에 수출할 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영국은 올해 1월 31일 EU를 탈퇴했지만

금년 말까지 권한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영국은 한 EU FTA를 지속해서 적용받게 되고,

전환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한-영 FTA가 적용될 예정이지

4

2020.01.01 한-EU FTA

2020.12.31 한-영 F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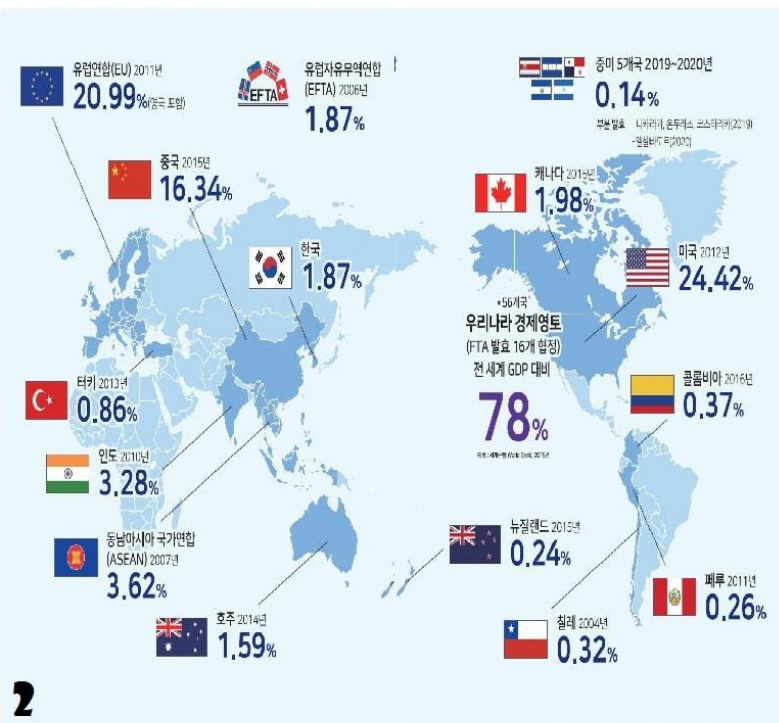


FTA의 효과와 체결 현황

FTA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뜻합니다. FTA 체결의 대표적인 효과로는 회원국 간의 상품 교역시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특혜 관세제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FTA를 체결하는 국가 간에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56개국과 총 16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GDP로 환산할 경우 전 세계 GDP의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브렉시트(Brexit)를 대비하여 한-영 FTA를 체결(서명 '19.8월, 국회비준 10월)에 하였으며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즉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한-영 FTA가 궁금합니다!

Q 한-영 FTA의 체결 효과는 무엇인가요?

A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과 영국간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개방(상품, 서비스 등)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결(서명 '19.8월, 국회비준 10월)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한-EU FTA와 같이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자동차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이 영국에 무관세 수출이 가능합니다.

Q 한-영 FTA와 한-EU FTA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한-영 FTA는 FTA 상대국이 EU 28개 회원국에서 영국 단일국으로 변경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한-EU FTA 대비 관세율할당, 원산지 및 지적권 규범의 일부를 변경하였습니다.

- (관세율할당) 국내 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 소비자 후생을 고려, 영국에 관세율할당(TRQ)을 제공
* 물량은 한-EU FTA 대비 각각 10.9%, 9% 수준으로 조정('16~'18년 수입량 기초)
- (원산지) EU 역내에서 운영되던 기존 생산 공급망의 조정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 EU산 재료·공정 제품에 대해 3년간 원산지 인정
- (지적권) 영국은 주류 2개 품목, 우리는 농산물·주류 64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GI)*를 인정하고 관련 지적권을 보호
* 한국(64개):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이천쌀, 고려홍삼, 고창복분자, 진도홍주 등 영국(2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쉬위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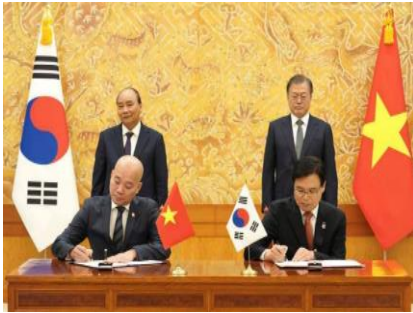
Q 한-영 FTA는 언제 발효하나요?

A 현재 영국은 EU를 탈퇴했지만, 아직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 '20.2.1~'21.12.31)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EU와 관세동맹/단일시장에 잔류하게 됩니다.

▶ 따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EU FTA가 적용, 한-영 FT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입니다. 다만, 영국과 EU가 합의하여 전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한-EU FTA가 적용되고 한-영 FTA 발효는 연장된 전환기간 이후로 변경됩니다.



코리아데스크 소개



설립배경

2019년 11월 27일,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중 코트라와 비엠테레이드는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베트남간 투자와 교역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양 국가간의 투자와 교역 활성화를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8월 1일부로 VIETRADE내에 KOREA DESK를 설립하여 KOTRA 직원을 파견하였습니다.

주요활동

1. 홍보지원

- 지방성 교역·투자 홍보 지원
- 부품소재 등 산업별 교역 - 투자 연계사업 지원
- 양방향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지원

2. 정보제공

- 유망 지방성·산업단지 정보 업데이트 및 전파
- 베트남 투자진흥센터 홈페이지에 한글판 구축
- 주요 산업·정책 보고서 한글화 지원

3. 네트워킹 지원

- 한국기업과 베트남 산업정책 담당자간 정책간담회 개최

4. 제도정비

- 베트남 정부의 투자유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투자유치 정책 선진화 지원



위치 6th Floor, Vietrade building, 20 Ly Thuong Kiet, Hoan Kiem, Hanoi, Vietnam

연락처 Office: +84-24-3934-1512

팀장 최동철 DC Choi

M. +84-93-455-7363

E. dcchoi@kotra.or.kr

매니저 Tran Thu Quynh

M. +84-94-759-5626

E. thuquynh1124@kotra.or.kr

매니저 Nguyen Thi Nguyet Ha

M. +84-98-110-3280

E. hanguyen@kotra.or.kr



주요기관별 베트남 특별입국 추진현황[2.19.기준]

<주베트남대사관·주호치민총영사관·주다낭총영사관, '21.2.19>

1 국내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 (문의) 이메일: btsc@kita.net, 대표전화: 1566-8110, 홈페이지: www.btsc.or.kr
-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1층 로비
- * 베트남(하노이-반동공항)은 3.10(수) 및 3.25(목) 예정이며, 지속추진 중

2 베트남

* 주요 교민단체별 단체입국 현황이며, 각 여행사를 통한 개별입국은 제외

□ 하노이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하노이코참	3.19(금)→ 3.4(목)까지 4.7(수)→ 3.24(수)까지 4.23(금)→ 4.9(금)까지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support@korchamvietnam.com 대표전화: 024-3555-3341	www.korchamvietnam.com 코참회원사 대상(원칙)
하노이한인회	3차(3월 말) → 2.28(일)까지 * 매월 지속추진	이메일: koreahn2021@gmail.com 카톡: http://pf.kakao.com/_pHqRK 신청: http://naver.me/xFpjQ4D9	http://homepy.korean.net/~vietnamhanoi/www/ 대사관 지원
하노이 중소기업연합	14차(3.19 금) → 3.1(월)까지 15차(4.3 토) → 3.16(화)까지 16차(4.18 일) → 3.31(수)까지 * 격주단위 지속추진	이메일: info@kbizhanoi.com 대표전화: (한국) 070-5111-2872 카톡ID: kbizhanoi1, kbizhanoi2, kbizhanoi3	www.kbizvietnam.org 대사관 지원

□ 호치민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호치민한인회	9차(3.28 일 / 4.14 수) → 2.19(금)까지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hchiminh@korean.net 대표전화 : 028-3920-1610 카톡ID : hcmhanin	www.koreanhcm.org 총영사관 지원

□ 다낭

주관기관	입국예정일 → 신청기간	문의처	비고
다낭한인회	3월 하순~4월 중순(잠정) → 2.25(목)까지 * 베트남 상황에 따라 지속추진	이메일: koreancentralvn@naver.com 대표전화 : +84-77-258-7686 카톡 ID : korassctrvn	http://cafe.naver.com/dananghanin 총영사관 지원



□ 베트남 팀코리아 협의회 2021년 제1차 회의 개최

- 일시/장소: 2021.3.12.(금) / 대사관
- 참석대상: 대사관, 하노이 주재 공공기관, 경제단체, 로펌·회계법인 등이 참석 예정
- 주요 협의 내용
 - 최근 베트남 정치·경제 정세 공유
 - 2021년 지방성 방문 행사 관련 협업
 - 코로나 재확산 관련 진출기업애로 관련 토론 등

※ 베트남 팀코리아 협의회는 대사관-공공기관-경제단체 등 3자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로서, 총 26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트어티엔후에성(Tỉnh Thừa Thiên Huế)-한국 경제협력증진 세미나 개최

- 일시: 2021.4.8.(목)~4.9.(금) (잠정)
- 장소: 트어티엔후에성 인민위원회 청사 (The Office of the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No. 16 Le Loi Street, Hue City)
 - *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후에시 푸바이(Phu Bai) 공항으로 이동시 약 1시간 10분 소요
- 참석자: (베트남측) 당서기, 인민위원장 등 트어티엔후에성 지도부
(한국측) 대사관, 공공기관, 관심기업 등 약 30명
- 문의처: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이메일: joara@kotra.or.kr)



□ KOTRA ‘글로벌 CSR 사업’ 참가기업 모집 (~3.12.)

- 사업 내용 : 우리 기업의 CSR 활동을 지원하여 해당 지역의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하고, 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현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출 기반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업
- 지원 대상 : 해외 CSR 활동에 관심 있는 기업*
 - * 진출기업의 경우 국내 본사로 지원금 정산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사업 신청 기간 : 2021.3.12.(금)까지
- 지원내용
 - (기업지원금) 선정된 CSR 사업 추진을 위한 기업 직접지원금 지원
 - * 신청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 한도 내 정산 지원
 - * 세부내용은 하단 공지사항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현지행사지원) 무역관을 통한 현지 CSR 사업 지원
 -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대리 수행 지원
- [세부 공지사항 및 제출 서류 등 안내](#) (클릭시 링크연결)
- 문의처 : 하노이무역관 윤진슬 과장 (jinseul_y@kotra.or.kr)



편집 및 제작 : 베트남비즈니스협력센터 / 협업 : 코트라 하노이, 호치민, 다낭 무역관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84 24-3946-0511 joara@kotra.or.kr <저작권자 © KOTRA >